



시간에서 미래로, 공간에서 세계로
국립인천대학교 소식지



SPRING 2017. vol.73



송도캠퍼스 22012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
제물포캠퍼스 22100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대길 319
미추홀캠퍼스 21999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인천대학교 대외협력홍보팀 Tel. 032-835-9331 Web. www.inu.ac.kr



INU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관심과 나눔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인으로 백악관 차관보급 직위까지 오른
강영우 박사는 어린 시절 부모님을 여의고
14살에는 사고로 시력까지 잃었습니다.
하지만 1972년 국제로터리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돼
미국 피츠버그대로 유학을 가
한국인 최초 시각장애인 교육학 박사가 됩니다.
사회에 보답하고자 한평생 나눔의 삶을 살아온 그는
2011년, 췌장암 말기로 인해 삶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판정을 받고도 나눔을 이어갑니다.
한국인 학생을 위해 써달라며
3억 원의 장학금을 기부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 삶을 여기까지 이끌어준
‘사랑’에 대한 빛을 갚으려 합니다.”

자신도 불우했지만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나누던
당신의 그 마음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인천대학교의 미래인재 양성과 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인천대학교 발전기금 무통장 후원하기 : 농협 1325-01-000611 예금주 (재)인천대학교 발전기금



인천대학교 소식지
2017년 봄호 통권 제73호

발행일 2017년 5월 발행인 조동성 발행처 인천대학교 대외협력홍보팀 032-835-9331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아카데미로 119 www.inu.ac.kr
디자인·인쇄 웨스트코(주) 032-423-1988

01 함께 만드는 미래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전국 최고의 창업선도대학		04
	바퀴달린 사과, 1,740km 아름다운 동행기		08
	차별화된 인프라, 20년 후 미래도시를 완벽 구현하다		12
	지역인재의 꿈을 키우는 인천대의 힘		14
	사범대학, 최우수 교원양성기관으로 도약하다		16
02 비전이 완성되는 캠퍼스	세계가 인정한 원자층 증착법(ALD) 분야의 차세대 리더	이한보람 교수	18
	캠퍼스 이모저모		20
03 희망을 전하는 약속	청년들이 어깨 펴고 사는 세상, 함께 만들어가요	김교홍 동문	26
	시민사회 활동가는 공동체의 목표 耳다	이광호 동문	28
	동문 소식		29
	아름다운 전통, 인천대의 미래가 되다	경영대학원 MBA과정 33기 원우회	30
	더불어 사는 삶, 기부에서 시작해요	에너지로드 이완구 대표	32
	우리의 미래, 아름다운 습관으로	김병훈 교수 / 김동호 과장	34
	발전기금 소식		36
	발전기금 현황		37

QR 코드를 통해 인천대학교 소식지를
이북으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전국 최고의 _____ 창업선도대학

창업진흥원 창업선도대학 평가 전국 1위

edit 유서진



창업아이템사업화 졸업식

그저 생계를 위해 영혼 없이 직장을
다니고 싶지 않은 청년들이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을
내 일처럼 돕고 있는 우리대학
창업지원단이 귀중한 성과를 내고
있어 화제다. 막대한 열정으로는 자칫
위험해질 수 있는 창업이라는 도전을
끌어주고 밀어주며 함께하기를 7년.
마침내 창업선도대학 평가 전국
1위라는 이름표를 당당히 달고 정상에
우뚱 섰다. 국내 여럿 명문대들도
참가하는 창업선도대학 사업. 과연
인천대의 어떤 차별점이 우리를 최고로
만들었을까?



일반인실전창업강좌

사업 평가 1위, 국비 35억 원 확보

우리대학이 최근 전국 32개 창업선도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창업진흥원 2016년 사업성과 평가에서 전국 1위로 평가 받아 정부지원금 35억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거뒀다.

우리대학 창업지원단은 1999년 창업보육센터로 시작돼 이듬해 중소기업청 창업선도대학육성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됐으며, 2014년도에는 사관학교식 창업선도대학, 현 입소형 창업선도대학으로 선정돼 창업거점대학의 위상을 확립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괄목할만한 꾸준한 성과를 내며 7년 연속 창업선도대학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는 굉장한 성과라고 자부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유수의 명문대학이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창업지원만큼은 우리대학이 명실상부 최고이기 때문이다. 이번 평가를 통해 확보한 35억 원의 지원금이 가장 많기도 하지만 타 대학 창업지원 부서에서 입을 모아 '창업지원은 인천대가 으뜸'이라고 이야기한다.

우리대학 창업지원단은 그동안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배출하고 지역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을 해왔다. 총장직속의 독립기구로서 총 2센터 5개 팀으로 구성돼 정영식 단장의 필두 아래 부단장, 실장, 팀장 등 총 16명의 직원들이 창업지도를 위해 쉬지 않고 달리고 있다.

이러한 열정은 창업진흥원 2016년 사업성과 평가에서 에너지로드와 로한컴퍼니가 제조 부문과 수출 부문에서 각각 1위를 달성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이 두 기업의 지난해 매출은 187억 원으로, 스타트업 기업 중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뿐만 아니다. 지난해 우리대학이 지원한 창업 아이템 사업화 기업들은 총 282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또한, 86명을 신규 채용해 198명을 고용하는 등 신규 인력 창출에도 기여했다. 재학생들의 창업 활동도 활발하다. 지난해 우리대학 학생이 창업한 기업은 23개에 달한다. 기존에 창업한 13개 기업은 총 4억6,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고, 14명의 신규 인력을 창출했다.



창업동아리 워크숍



홍콩메카쇼

자격증 갖춘 창업전문가 보유

그렇다면 이처럼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7년이나 연속으로 창업선도대학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바로 창업지원단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일 등공신으로 꼽을 수 있다.

먼저 우리대학 창업지원단의 차별점은 ‘창업 매니저’들의 전문성이다. 대부분의 매니저들이 최소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창업을 지원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1개 이상의 창업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 적재적소에 예비창업자에게 필요한 조언을 해줄 수 있다.

두 번째 비결은 멘토, 멘티 그리고 행정직원들 간의 관계가 매우 돈독하다는 점이다. 조언을 해주고 듣는 입장에서 매번 소통이 잘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예비창업자의 넘치는 열정을 컨트롤해주는 멘토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고, 멘토의 조언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멘티의 자세도 중요하다.

마지막 비결은 적극적인 사업홍보와 합리적인 평가과정을 통해 우수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는 데에 있다. 신청된 사업계획서를 꼼꼼히 심사한 뒤 가능성이 보이는 팀을 발굴해 그들의 성공을 위한 무한한 애정을 쏟아냈기에 지금과 같은 자리에 오를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한 마디로 우리대학 창업지원단의 성과 비결은 눈빛만 봐도 무얼 말할지 척 알아듣는 팀워크에서 나오는 시너지가 아닐까 싶다.

이들의 열정은 실제 매출로 이어지고 있다. 사업에 참여한 30개 사업자 중 85%를 훌쩍 넘는 26개 사업자가 가시적인 매출을 올렸으니 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가늠할 수 있는 수치다.

창업, 취업 아닌 또 다른 대안

성공적인 창업지원의 대표적인 사례로 중국을 들 수 있다. 중국은 한 해 R&D산업에만 250조 원을 투자할 정도로 젊은 인재들의 도전에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고 있다. 세계를 위협하는 마이금융, 샤오미, 디디추싱 등의 기업이 무서운 기세로 떠오른 이유가 다 이러한 국가적 지원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떠올리면 패가망신이나 빚쟁이, 부도와 같은 무서운 단어들부터 떠올린다. 하지만 창업은 그리 어마어마한 도전이 아니다. 취업의 선택지에서 만나게 되는 또 하나의 길일뿐이다. 실제로 요즘 우리 학생들이 생각하는 창업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다. 학점형 강좌로 개설돼 있는 다양한 창업 관련 수업 덕분에 더 친근하게 창업에 접근할 수 있고, 주말마다 열리는 창업캠프 등 프로그램을 통해 강의실에서는 배울 수 없는 수많은 것을 배워간다. 실제로 창업을 준비한 학생들은 취업에도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이야기한다. 취업도 힘들지만 창업은 취업보다 10배, 20배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실패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꼭 잃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면접관들도 창업 경험이 있다고 하면 더욱 관심을 가지고 호평하기도 하니 말이다.

우리대학 창업지원단은 지금까지의 성과를 발판 삼아 더욱 높이 날아오를 예정이다. 성공을 거둔 창업자 동문을 많이 육성, 발굴해내 앞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또한 창업경진대회, 청년창업자 모집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잠재력을 가진 이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군이 될 예정이다.

창업은 단지 개인적인 목표 달성으로 끝나지 않는다. 실제 매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또 일자리 창출과 고용효과로까지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창업자는 애국자’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한다.

남의 꿈을 이룰 것인가. 나의 꿈을 이룰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놓인 뚝뚝한 청년들이 찾아오는 창업지원단. 이상과 열정을 좇았더니 어느덧 자신에 꿈에 다다랐다는 그들의 이야기는 거짓이 아니다. 여러분이 꿈꾸는 미래도 머지않은 곳에 숨어있을지 모를 일이다. 우리대학이 동북아 최고의 청년창업 메카가 되는 그 날을 위해 창업지원단은 오늘도 수많은 청년들의 꿈과 소통한다.

※ 2016년 신규 학생창업자 현황

No	창업자	기업명
1	고선용 외 2인	메이크로
2	고창완	매직서클
3	곽준범	비아이앤티
4	김병준	비주얼코드
5	김우겸	자취생나라
6	김주리	주피터
7	남수빈	무비앤
8	박형천	풀아워스
9	신홍제	에어러블
10	안혁범	에이치비
11	오준택	로컬프렌드
12	윤두진	노마두
13	이기현	감각개발연구소
14	이남곤	세일간이
15	이석빈	초록마켓
16	이준석	청개구리
17	이준호	만타
18	임영혁	조이스티커
19	장인수	그래두
20	최현수	뷰티스티커
21	최혜민	훈밥남녀
22	한동찬	라이프체인징레슨
23	한승찬	픽업스티커

Mini Interview



정영식

창업지원단장

Q. 창업지원단 운영에 있어 가장 초점을 두는 부분은?

전국 최고의 창업선도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비결은?

창업지원단에 대해 여전히 잘 모르는 학생들, 지역민들에게 한 말씀

앞으로의 운영 계획 한 말씀

A. 우리대학 창업지원단은 기업가정신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거점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전문화된 역량이 매우 중요하고 유관기관의 협력과 소통을 이끌어 내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필요로 합니다. 현재 모든 직원들이 창업보육전문매니저 자격증, 기술평가사, 기술경영사 등 하나 이상의 자격증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학생과 사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 적절한 방향제시 및 멘토링을 하고 있습니다.

총장님의 역점사업의 하나인 ‘대학 내 창업활성화’를 통해 교직원들에게 창업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널리 확산되었으며, 창업선도대학 사업을 수행하는데 적극적인 도움을 주신 것이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 기업가정신을 고취시켜 창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창업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활동하도록 하여 창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도록 한 것이 창업동아리 등에서 좋은 성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걸맞은 사업성 있는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은 많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드뭅니다. 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는 여러분들이 창업을 시도할 수 있는 용기와 기회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창업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많은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대학교는 동북아 허브 송도라는 지리적 여건을 발판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 최고의 청년창업 메카로 도약하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천대 창업지원단은 지역의 창업활성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글로벌 창업을 위한 청년 창업의 메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퀴달린 사과, 1,740km 아름다운 동행기

체육학부 이강안(4학년)·한태건(2017년도 졸업)
30여 일간의 베트남 종주

edit 유서진

사과를 요구하기 전 먼저 반성하고파

2월의 첫 날, 대한민국의 두 청년은 베트남 횡단을 위한 힘찬 페달질을 시작했다. ‘바퀴달린 사과’라는 이름으로 팀명을 정하고 베트남 하노이를 시작으로 탄호아, 광둥, 다낭, 투이호아 등을 거쳐 27일 호치민에 이르기까지 총 1,740km를 자전거로 달렸다. 이번 자전거 종주는 일본의 위안부 만행을 세계에 알리기 전, 우리가 베트남전쟁 당시 그들에게 했던 잘못을 올바르게 인식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강안 학생은 “애초 일본군의 위안부 만행을 바로 알리고자 일본 자전거 여행을 계획했다. 하지만 위안부 문제를 되돌아보던 중 역사적으로 베트남에 잘못된 것이 있는데 이는 외면하고 일본에 사과만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 베트남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여전히 일본 위안부 문제는 사회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큰 이슈이고 문제다.
사과 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우리도 과거 베트남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그것을 잊고 살아간다는 사실.
우리대학의 두 청년은 일본에게 사과받기 전에 스스로 떳떳해질 수 있도록 ‘바퀴달린 사과’라는 이름으로
33일간의 긴 여정을 떠났다.



“사실 처음엔 우리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어요.
하지만 막상 가보니 적대감 대신
손을 잡아주셨죠”



피해마을에 사과 후 아이들에 체육봉사

이들은 베트남 중부 다낭지역에서 한국군에게 희생된 민간인 추모비가 있는 풍니마을과 위령비가 있는 하미마을을 첫 번째 목적지로 정하고 이어 팡응아이 빈호아마을 위령비를 찾기로 했다. 베트남은 여전히 민간인 희생자 추모비나 위령비에 대한 한국인 단체 방문이 허용되지 않을 정도로 감정이 좋은 편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곳을 찾아가 과거를 사과하고 한국의 전통문화를 전하고 왔다. 이강안 학생은 “사실 처음엔 우리에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했어요. 하지만 막상 가보니 적대감 대신 손을 잡아주셨죠.” 사건이 있던 당시 두 다리를 잃은 한 할머니는 2013년 세상을 떠나기 전 유언으로 ‘한국인을 더는 미워하지 말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그곳에서 만난 유가족들 역시 전쟁 후 방치된 수류탄으로 인해 실명된 아픔을 가지고 있었지만 따뜻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태건 학생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위령비를 찾아 쓰레기를 줍고 새똥을 청소하는 정도였어요. 과거 저지른 잘못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일이라 더 마음이 아팠어요.” 두 학생이 찾아다닌 곳이 피해마을만은 아니다. 현지 학교와 보육원을 돌아다니며 전공을 살려 아이들에게 체육을 가르쳤다. 한국 전통놀이인 제기차기와 여럿이서 원반을 던지는 플라잉 디스크 등을 알려줬는데 반응이 아주 좋았다. 학교나 길거리에 아이들이 모여 있을 때면 무작정 다가가 공놀이 등 체육봉사를 진행했는데, 어떤 때에는 수십 명이 몰려들어 당황했을 정도다. 이강안 학생은 “전쟁이 나면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것은 연약한 아이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볼 때면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우리가 가진 재능으로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즐거운 시간을 선물해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역사를
바로 알고 상처받은 그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힘든 시간 버티게 해준 응원의 손길

여정 중간 지점인 다낭에서부터 베트남 현지인들이 두 청년을 알아 보기 시작했다. 얼마 전 베트남의 한 언론사와 진행한 인터뷰로 인해 얼굴이 알려진 탓이다. 하루는 커피숍에서 계산을 하려고 보니 어떤 중년의 신사가 그들의 몫까지 대신 계산을 해주었다. 그 남성은 딱히 아는 체도 하지 않고 유유히 자리를 떴지만 격려의 마음이 느껴져 가슴이 벅찼다고. 베트남에서 받은 도움은 한 두 번이 아니다. 사과를 위해 찾아간 곳이지만 되려 그들에게 쏟아지는 온정의 손길에 두 청년은 몸 둘 바를 몰랐다. 30여 일 간의 일정에 드는 비용은 400만 원 정도. 아르바이트로도 비용을 충당했지만 이들의 계획을 안 우리대학 교직원들과 여러 기업들의 도움이 컸다. 이강안 학생은 “하루 평균 80km를 달려야 하는 강행군이지만, 한국과 베트남 모두 내 일처럼 도와주었기에 무사히 종주를 마칠 수 있었다. 한국과 베트남의 역사적 관계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기쁘겠다.”며 웃었다.

올 여름 일본서 계속되는 바퀴달린 사과

이강안 학생은 지난해 여름방학에도 친구와 함께 미국 LA부터 시카고까지 3,500km를 자전거로 횡단하며 독도 홍보 활동을 펼쳤다. 그는 미국에서 진행한 자전거 여행 동안 많은 외국인을 만나며 독도 알리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독도문제 못지않게 일본 위안부 문제도 세계에 알릴 필요성을 느꼈다. 그래서 일본 현지에 가서 위안부의 역사적 진실을 알리고자 공부하던 중 베트남전쟁에서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 알게 되었고, 베트남 종주를 먼저 실행에 옮기게 된 것이다. 33일간의 여정이 끝나고 지난 3월 4일 두 사람은 한국으로 돌아왔다. 베트남 종주는 끝났지만 위안부들을 위한 노력은 여전히 현재진행중이란다. 그는 오는 7월 일본으로 다시 떠난다. 베트남에는 이강안, 한태건 학생 두 명이 떠났지만 올 여름엔 우리대학 학생들과 일본 현지 학생들의 참여로 여럿이 라이딩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 이 같은 뜻 깊은 활동을 후배들에게도 전통으로 물려줘 학과 차원에서 겨울에는 베트남, 여름에는 일본으로 ‘바퀴달린 사과’ 종주를 나설 수 있도록 기틀을 닦고자 하는 원대한 포부도 가지고 있다. 한태건 학생은 “당초의 계획보다 더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준 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움직이는 원동력을 얻게 된다. 30여 일의 시간 동안 어디서도 겪을 수 없는 소중한 순간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었으며,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역사를 바로 알고 상처받은 그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 3월 15일, 29호관에 미래도시 증강현실 스튜디오가 문을 열었다. 증강현실 스튜디오는 도시계획 발전 시나리오에 따른 결과물의 변화를 즉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교육시설로, 기존 교육과는 차별화된 생동감 있는 학습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도시연구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증강현실 스튜디오. 과연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지 따라가 보았다.

edit 신경화 photograph 이덕재

차별화된 인프라, 20년 후 미래도시를 완벽 구현하다

2차원 평면 한계 극복, 현실적인 도시계획 수립 가능

미래도시를 위한 교육과 연구를 주도해온 '미래도시의 탐색형 창의 교육 사업단'의 주요 실습 기자재로 활용될 '미래도시 증강현실 스튜디오'가 문을 열었다. 지난 3월 15일 개소식에는 조동성 총장을 비롯해 윤태양 포스코건설 전무, 이승우 인천도시공사 본부장, 김수삼 성균관대학교 석좌교수, 하석용 홍익경제연구소장 등 각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증강현실 시연을 함께 지켜봤다. 사업단장 신은철 교수는 증강현실 스튜디오를 통해 우리대학의 핵심역량이 한 단계 더 레벨 업 할 것이라 자신했다.

“우리대학은 이미 국제적 수준의 교육 콘텐츠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콘텐츠는 증강현실 비디오 시스템과 동작센서 설비를 구축한 이 스튜디오를 통해 보다 현실적인 구현이 가능해졌습니다. 차별화된 실무 경험과 역동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핵심역량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증강현실 스튜디오 구축은 2차원 평면이 가진 도시 계획 한계를 뛰어넘어, 보다 지속가능한 도시 계획 수립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장 눈앞의 상황이 아닌 10년, 20년 후에도 조화와 균형적인 발전을 이어가도록 사회기반 시설, 주거시설 등을 미리 3차원으로 구현해 예측한다. 건물 내·외부를 들여다보며 오가는 사람들의 동선



학생들에게 차별화된 실무 경험과

역동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핵심역량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을 고려한 편리성은 물론 공기의 흐름까지 가능할 수 있다. 그만큼 도시 설계와 계획의 정확도는 높아지고 문제점을 미리 예측·예방할 수 있다. 아울러 즉각적인 체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현실적 대안은 공상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실습과 실험을 통해 현실 감각을 익히고, 수립한 대안이 지속가능한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수정하며 현실화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학생들은 3차원 가상 현실 속에서 보다 정확한 답을 찾아갈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철저한 연구로 인천 도시발전 기여

미래도시의 탐색형 창의교육 사업단의 목표는 명확하다. 미래도시 성장을 위한 창의적 인재를 양성해 지역 발전의 견인차가 되겠다는 것이다.

“인천을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견인하는 역할, 그 핵심이 될 인재를 배출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미래도시, 그것은 새로운 가치가 부여된 도시이다. 구체적으로는 삶의 만족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도시이자 지속가능한 성장 가능성을 갖춘 도시를 말한다. 무엇보다 미래도시는 문화적 풍요가 흐르는 도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업단은 이를 위해 교육과 현장실무를 연계한 교육 과정을 개발하는 한편, 교육 네트워크 체계를 강화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를 마련해왔다. 국제적 실무 역량을 강화하는 장·단기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공적 개발원조(ODA) 사업 운영, 재난관리 실무중심 현장 교육을 지원해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증강현실 스튜디오 구축으로 우리대학이 또 하나의 도약대 위에 올랐습니다. 국제적 수준의 교육 인프라를 기반으로 현장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교육의 질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발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연구진, 연구시설, 국가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로 인천 도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우리대학은 국제적 수준의 교육 콘텐츠를 주력으로 실무적 프로그램을 확대하며 창의적 인재 양성에 힘써왔다. 그에 더해 이번 증강현실 스튜디오 구축으로 우리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에 새로운 지평이 열렸다. 현실과 동떨어진 대안은 한시적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언정 지속가능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 그 어느 분야든 답은 현장에 있다. 현장 감각을 높인 교육 환경에서 역량을 갖춘 인재, 인천대인의 활약이 기대되는 이유다.

지역인재의 꿈을 키우는 인천대의 힘

[초등생 토요과학체험교실]

책으로만 배우던 과학실험을 직접 해보면 어떨까? 어렵게만 느껴지던 과학이 새삼 달라 보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대학 물리학과 학생들이 나섰다. 지역 초등생들과의 만남을 통해 과학의 즐거움을 알리고, 더 나아가 지역인재 양성까지 이뤄보고자 하는 깊은 뜻으로 시작한 토요과학체험교실이 바로 그것이다. 수업이 진행된 두 시간 동안 웃음이 끊이지 않았던 4월의 어느 날로 돌아가 본다.

edit 유서진 photograph 이덕재

우리대학 물리학과 학생들은 지난 4월 15일 영종초등학교에서 열린 토요과학체험교실을 시작으로 두 팀으로 나눠 지역 초등생을 위한 재능기부에 앞장서고 있다. 이 체험교실은 7월 22일까지 약 4개월 간 진행될 예정이며, 초등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호기심을 높여주고 과학에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게 하고자 마련됐다.

4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에 위치한 동춘초등학교에서 3~4학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체험교실. 제법 이른 시간이었음에도 수업시간이 가까워지자 학생들이 하나 둘 과학실로 들어서기 시작했다. 주말이라 늦잠 자고 싶을 법도 한데 과학을 배우기 위해 또 학교에 나오다니 제법 기특했다.

토요과학체험교실에서는 LED풍력발전 에코워치, 탁구공 온도계, 화산 만들기, 자석 토크인형, LED창작용 등대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건들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시간에는 단백질을 이용한 플라스틱 만들기 에 도전했다.

일일선생님을 맡은 물리학과 학생들의 자기소개가 끝나자 본격적인 수업이 시작되었다. 전문강사가 아니기에 약간은 서툴기도 했지만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아이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고 아이들도 선생님의 마음을 아는지 질문도 많이 하고 대답도 곧잘 하며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무리 없이 수업이 진행됐다.

한 조에 아이들 세 명과 지도교사 한 명으로 이루어져 과학 실험을 시작했다. 알콜램프를 점화하고 빈 비커에 우유를 담아 가열시키기 시작했다. 어느덧 우유가 끓자 아이들은 실험 순서에 맞춰 알록달

록 색소를 섞었다. 그리고 색소를 섞은 우유에 식초를 넣자 점점 우유가 응고하기 시작했다. 우유 덩어리를 채에 거르고 식히니 찰흙과 비슷한 모양의 우유 플라스틱이 만들어졌고, 안전하게 식힌 후에 아이들은 이것을 주무르며 나만의 플라스틱 물건을 만들었다. 불을 이용한 실험이라 다소 위험할 수 있었지만 아이들의 의젓함과 선생님들의 지도로 안전하게 수업을 끝마칠 수 있었다.

우리대학 학생들과 함께 이번 체험교실을 기획한 허진 사회봉사센터장은 “지역 어린이들에게 대학생 선배와의 체험교실 경험을 통해서 배려하고 함께하는 건강한 어린이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대학생들의 전공을 살린 다양한 나눔 활동이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하던 선생님과 아이들. 수업이 끝날 즈음엔 언니, 동생이 되어 농담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다. 아마 이번 과학교실을 통해 아이들 마음속에는 오래오래 기억할만한 추억 하나가 더 생겨났을 것이다. 우리대학의 재능기부를 통해 아이들의 과학시간이 지루함이 아닌 설렘으로 가득차길 바라본다.



14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아이들도 느꼈는지,
질문도 대답도 곧잘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즐거운
과학교실이 진행됐다



MINI INTERVIEW

동춘초등학교 4학년 천시우



평소 저에게 과학은 어렵고 싫은 과목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담임선생님께서 학교에서 과학교실을 하게 됐는데 하고 싶은 사람들은 신청서를 내라고 하시더라고요. 친구들과 함께하는 거면 재미있을 거란 생각에 신청서를 내고 참가하게 됐어요. 교과서로만 보던 어려운 과학을 대학생 선생님들이 쉽게 알려주시니 이전 과학이 싫지 않아요. 오히려 재미있어요.

동춘초등학교 4학년 권민영



엄마의 추천으로 과학체험교실에 오게 됐어요. 매주 다른 선생님들과 다양한 주제로 과학 공부를 할 수 있어 즐거워요. 저는 평소 에 과학을 좋아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더 과학에 흥미를 갖고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신청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과학교실이 끝나는 날까지 결석하지 않고 즐겁게 공부할 생각이예요.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물리학과 17학번 권준혁



입학 후 우리 과 동아리에서 재능기부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쁜 마음으로 가입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먼저 다가가기 쉽지가 않았지만 두어 시간 함께 지내다보니 많이 친해졌어요. 앞으로 중·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더 심층적인 과학을 배우게 될 텐데, 일찍부터 체험교실을 통해 과학을 친근하게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리학과 16학번 황산



평소에는 체험교실 실험준비로 바쁘고 주말에도 시간을 내야하지만 힘들다는 마음보다는 보람이 앞섭니다. 아이들 앞에 서면 준비한만큼 100% 다 보여주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쉽지만 저를 믿고 즐겁게 따라와주는 아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즐겁습니다. 아이들이 저희로 인해 과학에 더 흥미를 갖고, 또 나중에 인천대에 입학하는 인연으로 이어진다면 좋겠습니다.

15



학교현장실습 대비 사전 간담회

2017년 03월 30일 (목)
11:00 ~ 12:00
사범대학 207호

사범대학, 최우수 교원양성 기관으로 도약하다



edit 신경화

우리대학 사범대학의 역사는 짧다. 그러나 단단하게 쌓인 내공은 후발주자답지 않은 면모를 과시하며 교원양성기관 평가 최우수 등급을 획득하는 기염을 토했다.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의 잠재력을 꽃피우는 안내자가 될 우수한 교사, 그 중심에 우리대학 사범대학이 있다.

교원양성기관 평가 최우수 A등급 획득

사범대학은 2010년 유아교육과를 시작으로 2011년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일어교육과, 수학교육과, 체육교육과, 역사교육과, 윤리교육과 등 총 8개 학과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뒤늦은 출발이었지만, 역량을 갖춘 사범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에는 거침이 없었다. 우수 교원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제물포캠퍼스에서 미추홀캠퍼스로의 이전을 비롯하여 교육여건 확충에 심혈을 기울여 최적의 조건을 마련했고, 그 속에서 양질의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그 결과 사범대학은 4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교육부는 교원양성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우수 교원을 길러내기 위해 교육여건, 교육과정, 교육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발표한다. 결과에 따라 교원양성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 등 교원양성기관의 생존 문제와도 직결된 냉정한 평가이다. 최우수 등급을 획득한 우리대학 사범대학은 교원양성기관으로서 한층 더 높은 신뢰와 사범대학을 선도하는 역량을 보여주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마음 한뜻으로 똘친 사범대인

지난해 8월, 사범대학장으로 부임한 이시자 학장은 수개월 동안 평가 준비를 진두지휘했다.

“27명의 교수와 직원, 조교와 학생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한뜻으로 교육 헌신, 연구공동체, 지역밀착, 국제화, 성과주의 등 우리대학이 지향하는 바에 근거해 교원양성기관으로서의 비전, 목표, 추진 과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실천에 집중했죠. 그에 따라 단기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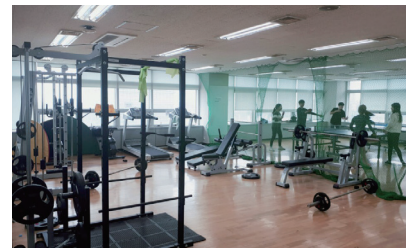
덧붙여 따뜻한 마음으로 소통하는 교육자, 현장 중심의 교육 전문가를 지향하며 펼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뿌리내리며 달콤한 결실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학생들은 교육 세미나, 교육 봉사, 현장 실습, 자유학기제 활동 등과 같은 교육 현장과 연계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역량을 키웠다. 교수진도 재능 기부의 형태로 참여해 프로그램을 더 알차게 만들었다. “우리 사범대학은 올바른 교직원, 현장 중심의 전문성, 공동체 소통 능력을 겸비한 교사를 추구합니다.”

따뜻함과 전문성을 품은 교육자 양성

우리대학 사범대학은 경기도 및 인천 지역의 유일한 국립 사범대학이다. 그 위상에 걸맞게 지역사회에 대한 교육공헌의 책무가 있다. 동시에 교원양성 최우수 기관으로서 글로벌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당위도 주어졌다. 이것은 우리 사범대학의 특화된 장점이자 넘어야 할 숙제이기도 하다.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잖아요. 요즘 아이들이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을 살피고 따뜻한 가슴으로 어두운 곳을 밝히는 불꽃을 지닌 사람, 그런 좋은 교사를 배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국립 사범대학으로서 대한민국의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당연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교육전



고시실



체력단련실

지식 전달자를 뛰어넘어 삶의 안내자의 역할을 묵묵히 해내는 교사, 능력을 갖춘 전문가로서 학생과 동료, 그리고 학부모와 두루두루 소통하며 사람의 마음을 읽는 소통하는 교사 말입니다. 그런 좋은 교사를 배출하겠다는, 또 그런 좋은 교사가 되겠다는 의지로 넘치는 곳이 바로 우리 사범대학입니다.”

문가로서 해외에서도 역량을 발휘하는 졸업생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며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교사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임용고시에 합격하여 직업을 갖는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열린 마음으로 꾸준히 노력하며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가능한 일, 그것이 교육자의 기본 소양이자 마음가짐이다. 교육의 본질을 성찰하며 ‘좋은 교육이란 무엇이고, 좋은 교사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항상 자신을 깨우는 질문을 던지는 예비 교사들. 그 어떤 화려한 미사여구보다 담백한 자기 성찰과 함께 두뼉두뼉 나아가는 이들의 행보에 무한한 신뢰를 보낸다.

2016년도 졸업생 임용고시 합격자 현황

학과별 합격자 수(14명) : 국어교육과 1명 / 영어교육과 1명 / 일어교육과 1명 / 체육교육과 5명 / 유아교육과 4명 / 윤리교육과 2명

2018학년도 수시모집 계획

※ 학과의 명칭 또는 소속 단과대학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모 집 단 위	계열	입학정원	학생부교과 중심				학생부종합 중심			실기·실적 중심	
			INU교과	교과성적 우수자	서해5도 출신자 (정원 외)	특수교육 대상자 (정원 외)	특성화고졸 재직자 (정원 외)	자기추천	고른기회 대상자	사회적배려 대상자	실기우수자
국어교육과	인문	15		3				5			
영어교육과		15		3				5			
일어교육과		15		3				5			
수학교육과	자연	18		3				6			
체육교육과	예체능	15								6	
유아교육과	인문	20		4				6			
역사교육과		10		2				4			
윤리교육과		10		2				4			

세계가 인정한

신소재공학과 이한보람 교수

원자층 증착법(ALD) 분야의 차세대 리더

신소재공학과 이한보람 교수(39)의 행보를 살펴해보노라면, 무릇 ‘우공이산(愚公移山: 무엇이든 하나만을 끊임없이 파고들면 큰 결과물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말이 떠오른다. 원자층 증착법 연구에만 장장 십삼 년을 매진, 최근 세계적인 과학·공학 저널 Chemistry of Materials로부터 러브콜을 받은 까닭이다. 이로써 이 교수는 원자층 증착법 분야의 떠오르는 다크호스로 주목을 받고 있다.

edit 이소영 photograph 이덕재

**2차원 소재에
원자층 증착법
접목한 권위자** 얼마 전, 신소재공학과
이한보람 교수는 매일
한 통을 받고 놀라움과
감격스러움을 감출 수

가 없었다. 미국 화학회인 ACS(American Chemical Society)에서 출판하는 과학·공학 논문 저널 Chemistry of Materials지의 수석편집장이 발신인이었기 때문이다.

“내용인즉 원자층 증착법(ALD: Atomic Layer Deposition) 분야의 신흥 강자로 발탁되었으니 관련 연구 결과 리뷰 및 전망 등에 대한 논문을 보내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슴이 뛰었죠. Chemistry of Materials지는 과학/공학자들 모두에게 두루 인정받는 Top저널이기 때문이죠. 더구나, Up&Coming Series란 코너의 주인공이라니(웃음)! 여러모로 더욱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Chemistry of Materials지 내에서도 Up&Coming Series는 특정 분야에서 떠오르고 있는 젊은 연구자의

성과들을 싣는 지면으로, 이에 선정된단 것은 그 우수성을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았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특히 자랑스럽고도 반가운 사실은 이 교수가 Up&Coming Series에 논문을 게재한 첫 번째 한국인이라는 점. 이쯤 되니 무척 궁금하다. Chemistry of Materials지에서 주목한 그의 원자층 증착법 연구란 어떠한 것일까?

“스마트폰이나 PC 등에 내장되어 있는 칩의 경우, 현재 가장 작은 부분이 5나노미터로까지 생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원자 1개가 약 0.1나노미터 수준임을 생각하면 이는 아주 작은 사이즈죠. 문젠, 오늘날의 기술력으로는 여기까지가 한계라는 것입니다. 더는 작게 만들 수가 없죠. 이에 저는 2차원 소재(dimensional materials: 2D materials), 가령 그래핀(Graphene)과 같은 것에 ALD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관한 연구내용 및 그에 따른 미래성이 높이 평가되어 Chemistry of Materials지에까지 발탁되기 이른 것입니다.”

**원자층 증착법
연구의 ‘길라잡이’
역할 톡톡** ALD, 즉 원자층 증
착법이란 나노 물질
위에 스케일링 정밀
도를 가진 물질들을

추가하는 가장 이상적인 기술로서, 기판 표면 위에서 자기제한 화학반응으로 박막층을 형성하는 방법이다. 그리하여 단차 피복성과 박막특성이 우수하고, 원자크기 수준으로까지 두께조절 또한 가능하다.

2차원 소재를 이용한 소자의 제작에 ALD가 최고의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대개의 2차원 소재는 두께가 대단히 얇으며 물리적, 화학적 특성이 뛰어나 나노 테크놀로지를 실현하는 데에 매우 적합합니다. 이때 2D 소재 고유 특징점을 살리면서 대량생산까지 가능해야 하는데요, 그 수단으로 ALD만한 것이 없단 뜻입니다.”

ALD는 2차원 소재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상태로 박막공정이 가능한데다가, 기존의 공정시스템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때문에 이한보람 교수는 2차원 소재와 관련한 ALD의 과거와 현재를 총망라, 앞으로의 전망까지 Chemistry of Materials를 통해 다각도로 다루었다.

2차원 소재와 ALD의 근본적 이해가 집약된 일종의 가이드 자료라 하여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2차원 소재를 기반으로 하는 응용 연구 분야의 연구자라면 읽지 않을 수가 없는 필독 논문이다.

실제로 해당 저널에 게재된 이 교수의 논문 「ALD on 2D Materials」는 다운로드 횟수 20위권 안에 들며 전 세계 연구진들에게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이는 1년간 발표되는 논문 960여 편 중에 최근 한 달 동안 기록된 다운로드수를 집계한 것으로, 이 교수의 논문이 출간된 시점이 1개월여밖에 안 됐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국제적인 호응도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해볼 만 하다.

한편 그는 작년 세계적인 과학저널 Nature의 자매지인 NPG Asia Materials 온라인 판에도 ALD 관련 논문을 발표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300℃ 이상 고온으로 이뤄지는 ALD를 열에 약한 섬유에다 80℃ 저온으로 적용



특히 자랑스럽고도 반가운 사실은 이 교수가 Up&Coming Series에 논문을 게재한 첫 번째 한국인이라는 점이다

하여 전자섬유라는 것을 개발하였음을 다룬 내용이다. 파리 한 마리 무게(30mg)도 감지할 정도로 민감도가 뛰어나고 전기저항 역시 금속과도 같은 수준인 이 섬유는, 의료(환자복)와 자동차(시트) 등 다양한 용도로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ALD의 모든 것을 이번 Chemistry of Materials지를 통해 집대성했습니다. 이제 2차원 소재 기반 연구 분야에선 물론이고 ALD 분야 발전에도 두루 이바지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방면에 있어 공학자의 모범 케이스로 남고 싶다는 이한보람 교수. 그가 빚어나갈 ALD계의 청사진은 분명 밝게 빛날 터다.



캠퍼스 이모저모

매일 캠퍼스 내에서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대내외 각종 대회에서 우리 대학의 위상을 떨치기도 하고, 타국에서 온 외국인 학생들과 여행을 떠나기도 하며 강의실 혹은 사무실이 아닌 곳에서 다양한 추억을 만들고 있다. 우리 대학 학생들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든든히 받쳐주는 훌륭한 교수님들의 소식, 그리고 누군가에겐 새로운 삶이 열리는 기회의 터가 될 INU의 매순간을 만나본다.

교수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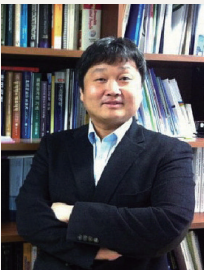
우수논문상 수상

법학부 문상일 교수가 지난 2월 개최된 (사)한국유통법학회 정기총회에서 ‘한국유통법학회 제2회 우수논문상’ 수상자로 선정돼 상패 및 300만 원의 부상을 받았다. 우수논문 선정은 학회 관련 규정에 따라 2016년 ‘유통법연구’에 게재된 전체 논문을 대상으로 11명으로 구성된 편집위원

회에서 후보로 추천된 논문 가운데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 1편을 수상논문으로 선정하고 있다. 문교수는 2016년 ‘유통연구법 제3권 제1호’에 ‘신종 불법 피라미드영업 규제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라는 논문을 게재했고, 이 논문이 최종 우수논문으로 선정되었다.

국비 9억8,000만 원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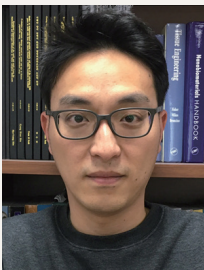
도시환경공학부 허종완 교수가 내진 설계 분야연구로 미래부와 국토부 자유공모 과제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선정으로 인해 허 교수는 총 9억8,000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으며, 지능형 신소재를 활용한 내진설계 분야에 대한 원천기술개발 및 검증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허 교수는 지난 2013년 조교수 직급으로는 이례적으로 중견연구자지원(구 국가지정연구실) 사업에 선정된 이래 3번 연속 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창의도전 연구를 포함하여 국토부에서 지원하는 자유공모형 기초원천 지원사업에도 2번 연속 선정되었다.



허종완 교수

생체재료 세계적 학술지 게재

생명공학부 김교범 교수가 ‘흉터 없는 피부조직 재생 치료법’에 관한 방법을 최근 생체재료분야의 세계적 학술지인 바이오매터리얼스에 발표했다. 기존에는 흉터를 없애기 위해 수술을 하거나 스테로이드 약물을 발랐는데 효과에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개발한 것이 단백질 바이오약품을 세포나 체내로 전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수술 부위에 붙이면 상처가 아무는 과정에서 흉터가 안 생기게 하는 방식이다. 김 교수는 “이번 치료법은 외과수술 환자들에게 병행하여 사용할 때 매우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교범 교수

교수 소식



신은철 교수

신은철 교수, 세계지반공학회 아시아지역 회장 당선

건설환경공학부 신은철 교수가 4년 임기(2017.9월-2021.8월)의 세계지반공학회 아시아지역 회장으로 당선됐다. 세계지반공학회(ISSMGE) 영국런던본부는 8일 신 교수가 아시아지역 회장으로 당선됐음을 발표했다. 신 교수는 아시아지역 회원국 24개국 중 18개국의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 우리나라 사람이 세계지반공학회 아시아지역 회장에 당선된 것은 1980년대 이후 30년만에 처음이다. 세계지반공학회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연구·개발, 프로젝트 자문 등을 수행하며, 아시아지역에는 24개 국가 10만 여 명의 회원이 있고, 한국지반공학회에는 12,000여 명의 회원이 있다. 신 교수는 “세계적인 학회의 회장으로 선임되어 매우 영광이다.”라며, “아시아 지역에 토목관련 기술이 낙후된 나라들이 많은데, 안전한 사회기반 시설 건설에 기여하고 싶고, 우리나라의 우수한 건설 기술을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의 저개발 국가에 전수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1994년 부임한 신 교수는 2004년부터 국제동토지역개발학회 부회장, 2009년부터 한국지반공학회 부회장 등 활발한 대외 활동을 하고 있다.

안성재 교수, ‘공자의 수사학’ 출간

우리대학 교육대학원 안성재 교수(43)가 동양의 수사(修辭)개념을 체계적으로 풀이하여 ‘공자의 수사학(어문학사, 338p)’을 출간했다. 「주역」을 보면, 수사는 공자가 군자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처음 쓴 표현이다. 이에 안 교수는 공자의 ‘수사’와 서양의 ‘레토릭’이 과연 서로 일치하는 개념인지를 확인하고자 했고, 그 결과 동양 사상의 최대 핵심인 지도자의 ‘술선 수범(率先垂範)’이라는 도리를 풀어서 설명한 것이 바로 수사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다시 말

해서 공자의 수사학이란 참된 지도자인 군자가 갖춰야 할 인성론과 리더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밝히는 학문인 것이다.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도(道)이고 도를 완성하려면 덕(德)이 필요하다. 덕이 충만해지기 위해서는 중(中)과 화(和)를 실천해야 한다. 중과 화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되는 인(仁)과 의(義) 그리고 형식이 되는 예(禮)와 악(樂)을 중심으로 검(儉) 겸(謙) 자(慈) 강(加) 직(直) 지(知)를 몸소 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도가



완성될 수 없으며 변치 않고 일관되게 실천해나가는 상(常)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처럼 안 교수는 도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뤄서 함께 실천되었을 때 비로소 지도자의 리더십과 인성이 갖춰질 수 있다고 피력하고 있다.

백원기 교수, (사)대한법학교수회 제3대 회장 선출

우리대학 백원기 교수(법학과, 59)가 4월 7일(금) 홍익대 홍문관에서 개최된 ‘(사) 대한법학교수회 2017년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재선임 받아 제2대 회장에 이어 제3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019년 3월 말까지 2년이다. (사)대한법학교수회는 국내 25개 로스쿨을 제외한 전국 135개 법과대(법학과, 유사학과)에서 법학을 가르치는 2,000여 명의 교수들을 구성원으로 하며, 강령은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인도주의적 법학의 실천(톨레랑스:Tolerance)’과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는 공정한 대한민국의 개혁 곧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입법행정개혁(노블레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이다. 백원기 회장은 지난 2년간 공개채용시험제도인 사법시험의 존치를 위하여 각종 언론방송활동을 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법학교수회 회원 전원 명의의 사법시험 존치 선언 기자회견문을 전달하고, ‘법무부의 사시존치 4년 유예안’을 도출한 바가 있다. 백 회장은 취임사에서 “국정농단 사건에 비추어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해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에 앞장서 가겠다. 그 기초가 되는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과 ‘법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 사법시험이 결국 폐지된다면 로스쿨 제도의 개혁을 주장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사법시험 제도’ 이른바 ‘신사법시험’이라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우회 통로’를 마련해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는 공정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하계 ‘월드프렌즈코리아 청년봉사단’ 파견 발대식



우리대학은 지난 5월 18일 ‘2017년도 하계 월드프렌즈코리아 청년봉사단 파견 발대식’을 가졌다.

청년봉사단은 태평양아시아협회가 주관하는 봉사단 4명, 대학사회봉사협의회가 주관하는 봉사단 13명 등 총 17명으로 몽골, 라오스, 탄자니아, 네팔, 키르기스스탄, 미얀마, 스리랑카, 우간다 등 8개국에서 6월부터 짧게는 2주부터 최장 5개월까지 전공과 연계한 교육봉사 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파견국에 따라 노력봉사도 시행할 예정이다. 발대식은 해외봉사에 대한 오픈영상 시청, 파견취지 및 현황 보고, 센터장의 격려사, 전년도 봉사활동 참여 학생의 격려사, 활동 당부사항 안내, 결의서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허진 사회봉사센터장은 “학생들이 이번 활동을 통해 인천대 인으로서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세계 시민으로서 더욱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외국인 유학생 단체 건강검진

지난 3월 27일 국제교류원은 인천의료원의 협조를 받아 외국인 유학생 150여 명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이날 건강검진은 우리대학과 인천의료원이 체결한 병원시설 이용 업무협약에 따른 것이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에 따라 대학 교직원 및 외국인 유학생들이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검진료를 대폭 할인해 주기로 했다. 인천의료원은 이번 외국인 유학생 건강검진을 위하여 특별히 11명의 의료 인력과 의료장비를 지원했으며, 외국인 유학생들은 결핵, 장티푸스 등에 대한 검진을 받았다.

건강검진에 참가한 스페인 출신 정치외교학과 후안 학생은 “예전에는 건강 검진을 위해 직접 병원을 찾아가고, 검사를 받을 때 말도 잘 통하지 않아 불편했었는데, 학교로 직접 방문하여 검사를 해주어 너무 편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외국인 교환학생 에버랜드 현장실습

우리대학은 교환학생으로 재학 중인 해외자매대학 교환학생 80여 명을 초청해 경기도 용인 에버랜드에서 현장실습을 가졌다. 학생들은 그동안의 학업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각종 볼거리와 놀이기구 등을 체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현장학습을 통해 유학생들에게는 언어뿐만 아니라 한국문화를 느낄 수 있는 값진 경험이 되었으며, 외국인 유학생 간 교류 활성화와 대학 소속감을 증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국제교류원 박춘수 팀장은 “해외자매대학에서 우리대학에 초청된 교환학생들에게 유학 생활 중에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교환학생들이 우리대학에서 지내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의·치대 설립추진단 발족

우리대학은 글로벌 명문대 도약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5월 1일 의·치대 설립추진단을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조동성 총장 취임 이후 세계 100대 대학 진입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데, 의치대 설립은 글로벌 대학 도약의 필수적인 성장 동력이라는 판단이다. 또한, 송도국제도시 국제병원 설립, 의료산업 육성 및 선진화 정책과 연계하고 지역사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조속한 의치대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치대 설립추진단은 조동성 총장을 단장으로 부단장 박종태 교수, 위원으로 권정호 교수, 김평원 교수, 노영돈 교수, 예정용 교수 등 총 6명으로 구성했으며, 의치대 설립을 위한 총괄적인 기획, 추진, 점검, 환류 및 관련 법률검토, 대정부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의치대 설립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등 활동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인천 5개 대학, 교류·협력 상생 업무협약 체결

우리대학과 가천대학교,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인천가톨릭대학교, 인하대학교 등 5개 대학은 인천지역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상호 교류·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5개 대학 대표들은 5월 4일 본교 송도캠퍼스 영상회의실에서 각 대학이 보유한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연구 및 교육 증진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협력분야 주요 내용으로는 학점 상호인정, 비교과 프로그램 등 공동 교육과정 운영, 강의 수업방식 등 교수학습법 교류, 공동연구 활성화, 기자재의 공동 활용, 동일조건 사용 캠퍼스 시설 공유, 우수 취업·창업·현장실습 프로그램 공유, 온라인 강좌 및 교양과목 공동 개발, 대학 교재 등 출판물 공동 개발·활용, 지역봉사 및 기타 활동분야 공동 개발, 헬스케어사업 협업, 진로 지도 및 상담 프로그램 공유 등이다.

인천유나이티드FC와 상호발전 업무협약

우리대학과 인천유나이티드(대표이사 정병일)는 지난 4월 12일 우리대학 영상회의실에서 상호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사회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우리대학은 2017시즌 동안 인천구단 공식 후원사로 활동하게 되며, 인천구단은 본교 축구부에 대한 축구용품 등 인프라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양 기관은 인적교류 확대를 통해 축구선수 발굴 및 영입 등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산학협력사업 프로젝트를 진행, 재학 중인 우수 인재를 인천구단의 잠재적인 스포츠 산업 요원으로 육성하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사회 공헌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한 공동 사업을 시행하고, 올 시즌 인천구단 홈경기 중 ‘인천대학교 브랜드데이’를 개최기로 했다. 협약식에서 조동성 총장은 “인천이라는 이름을 함께 쓰는 교육기관과 프로스포츠 구단이 하나 되는 뜻 깊은 자리가 마련됐다”며, “공동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우리대학 녹색환경지원센터,
사업성과 최우수센터 선정

우리대학 녹색환경지원센터(센터장, 인천대 정종태 교수)가 환경부에서 전국 15개 녹색환경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실시한 ‘16년도 사업 실적 정기평가’에서 S등급을 획득하여 ‘종합 최우수 센터’로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환경부가 전국 15개 센터를 대상으로 연 1회 사업성과를 평가한 것으로, 센터운영 및 발전기여, 연구개발사업, 기업환경지원사업, 환경교육사업 부문 등 총 4개 분야에 대해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인천대 녹색환경지원센터는 “각 단위사업 전반에 대해 인천지역의 환경현안과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산·학·연·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등 매칭이 잘 되어 있고, 사업성과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아 S등급 ‘종합 최우수 센터’로 지정했다. 특히, 지난 해 5년마다 실시되는 환경부 종합평가에서 전국 18개 센터 중 3개 센터가 지정 취소됐으나, 인천대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는 5년 재지정을 받은 가운데 실시된 정기평가라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정종태 센터장은 “앞으로, 인천지역 내 산·학·연·민·관의 환경기술 및 연구역량을 결집하여 지역 환경 현안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지역과 소통을 통해 지역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인천대 녹색환경지원센터로 거듭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서
우리대학 학생 3명 최종 합격

우리대학 학생 3명이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2017년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서 최종 합격했다. 그 자랑스러운 주인공은 행정 분야 김지예(경제학), 이민경(행정학)씨, 기술 분야 김현아(물리학)씨다.

우리대학은 최근 3년(2014년~2016년)간 매년 2명의 합격자를 꾸준히 배출했다.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은 국가의 지역인재추천채용제도의 하나로써 전국 16개 시·도 대학에서 대학의 교과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사람을 대학의 추천을 받아 PSAT(공직적격성평가)와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다. 2017년에는 전국 113개 대학에서 추천받은 608명의 학생 가운데 120명(행정 63명, 기술 57명)이 최종 합격했으며 최종 합격자는 1년간의 수습근무기간을 거친 후 7급 국가직 공무원으로 정식 임용된다.

과학영재교육원,
2016년도 평가서 최우수기관 선정

과학영재교육원(원장 박인호 교수)이 미래창조과학부 지정 전국 27개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학년도 연차평가에서 최우수 기관(S등급)에 선정됐다.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실시한 이번 연차평가는 2017학년도 사업계획 및 2016학년도 주요 실적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과학영재교육원의 사업계획 타당성, 대표적 우수성과, 학생선발 및 관리, 프로그램의 구성 및 질적 수준, 운영의 적정성 등 4개 분야 총 10개 항목으로 평가했다. 과학영재교육원에 대한 평가결과 내용을 보면 2016년도 사업운영 계획의 전략과 추진방향이 적절하고 우수하다고 평가하였고, 과학영재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ICT기반 교육프로그램의 가치와 독창성이 우수하다고 평가하였다.

노인인식 개선 위한 카툰전시회 개최

우리대학은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7일까지 12호관 컨벤션센터 1층 로비에서 인천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정희남)과 공동으로 노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학대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주기 위한 카툰 전시회를 개최했다.

전시회에는 2016년 인천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이 주최한 노인인식개선 카툰 공모전에 출품했던 우수작품 20여 편이 전시됐다.

행사를 주관한 인천대 사회봉사센터장 허진 교수는 “지금의 청년의 시간과 노년의 시간이 무관치 않음을 알게 하여 전 생애 동안 전 세대를 위한 계층 간의 돌봄과 상생이 얼마나 중요한 공동체적 살인지를 깨닫고 그 깨달음만큼 활동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안내하고 싶다.”고 전시회 취지를 설명했다.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인천 지역 유일 고용노동부 평가 ‘우수’

고용노동부 주관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성과 평정에서 우리 대학이 인천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우수’ 평가를 받았다. SWOT 분석을 통한 맞춤형 진로 가이드북 제작 등 체계적인 취업 지원과 전공 및 직무 중심 진로 설계 및 경력 개발 연계 등이 높은 평가로 이어졌다.

지난 4월 우리대학 미추홀캠퍼스 내 동지를 둔 대학창조일자리센터는 청년들이 캠퍼스 내에서 취업과 창업에 대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편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으로, 전국 국·공립대학 중 취업률이 상위권에 손꼽히고 창업 성과 역시 으뜸을 자랑하는 우리 대학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공간이다.

대학창조일자리센터는 진로취업지원관이 상주해 노동시장 진입 이전단계인 청년에 대한 진로를 지도하고 취업지원 등을 통해 대학과 노동시장 간의 원활한 연계를 목적으로 한다. 또 우리대학 학생이 아니더라도 인근 지역 또는 인근 대학의 청년들이 청년고용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취업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취업지원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

센터의 프로그램은 진로설계-전공역량 개발-취업지원 등 총 3단계의 프로세스로 이뤄져 있으며 저학년 학생들은 대학생활을 설계하고 자기탐색을 하는 등 일찍이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다음 단계인 전공역량 개발에서는 각 학과 교수님들과의 수많은 논의를 거쳐 해당 학과의 교육 커리큘럼에 어울리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마지막 취업스킬 지원은 이력서 작성, 서류 준비, 인·적성 대비, 모의면접 등 취업을 목전에 둔 고학년이나 졸업생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현재 대학창조일자리센터에는 총 7명의 컨설턴트가 근무 중이며 모두가 이 분야에 있어 최고의 전문가다. 또 단과대학별로 전문가가 따로 구분돼 있어 각 전공 컨설턴트에게 보다 심도 깊은 조언을 얻을 수 있다. 비전공 분야 취업을 원하는 경우에도 직무에 대한 정보는 물론 포트폴리오 작성법까지 세심히 챙겨줘 많은 이들이 도움을 받고 있다.

문의 : 032) 835-9963
주소 : 인천시 연수구 갯벌로 12 미추홀캠퍼스 별관 B동 510호

청년들이 어깨 펴고 사는 세상, 함께 만들어가요

정외 81학번

김교홍 국회의장 비서실장

edit 윤진아 photograph 이덕재

● 17대 국회의원,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 역임

변화와 혁신의 에너지가 역동하던 5월의 어느 날, 국회 사무실에서 김교홍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만났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해 6월 국회의장 비서실장에 김교홍 동문을 내정하면서 “국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헌법정신 구현, 국민신뢰 회복, 미래한국 준비라는 3대 비전을 실현하는 데 적임자라 생각한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김교홍 비서실장은 1997년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총재의 제안으로 인천 연수구 지구당 위원장을 맡은 후 시당 사무처장, 중소기업연구원장 등을 역임했다. 2004년 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며, 2005년 열

린우리당 인천시당 위원장에 선출됐다. 국회의원 시절 3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된 김교홍 동문은 선거 당시 약속했던 7개 분야 52개 주요정책공약 중 90.8%를 이행하는 높은 추진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2012년~2014년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했다.

국회의원 교육분과위원 재임 시절, 인천대학교 법인화 문제 해결을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던 그다. 김교홍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숙원이었던 국립대 전환 이후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인천대학교가 거점 국립대학으로 발전할 계기가 마련됐다”며 기대를 표했다.

“의·치대 설립, 중국 5개 도시 브랜치 캠퍼스 개설, 바이오연구소 유치 등 취임 이후 많은 변화와 혁신을 시도해온 조동성 총장님은 참 정책적 아이디어가 많은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의 약진에 필요한 인적·물적·제도적·재정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구성원 모두가 인천대학교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평가를 높이는 인프라 구축 사업에 합심한 결과, 예상보다 빠르게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 뿌듯합니다. 인천대학교가 거점국립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우리 동문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할 날이 머지않은 것 같아 기대가 큼니다.”

● 5·3 인천민주항쟁 주도, 인천대 총학생회장으로 학원민주화 투쟁

1981년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했으니, 어느덧 36년의 세월이 흘렀다. 1980년대 선인학원에 있던 인천대는 학내 갈등이 끊이지 않던 상황이었다. 1986년 인천대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된 김교홍 동문은 사학비리의 온상이었던 선인재단 백인엽 이사장의 전횡에 맞서 학원민주화투쟁을 이끌었고, 5·3 인천민주항쟁을 주도하다 구속됐다.

“국내 최대 사학으로 비리가 끊이지 않았던 선인학원으로 인해 당시 캠퍼스 안은 온통 공사판이었어요. 학교에 재원을 투자하지 않아 대학원 건물 건축 공사는 몇 년째 중단돼 방치됐고, 도서관 건축 역시 마찬가지였지요. 교수와 학생은 기초적인 실험·실습 도구가 부족해 제대로 된 수업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해 못할 시설물 설치와 토건 사업이 학내 곳곳에서 행해졌습니다. 문제를 자각했다면, 행동으로 실천하며 문제를 고쳐나가야죠. 그것이 실천하는 지성인 대학생의 본분이고, 스스로와

사회를 성장시켜나가는 열쇠니까요. 자발적으로 학원민주화투쟁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인천대학교와 사회의 성장을 앞당겼다고 믿습니다.”

젊었던 청춘은 어느덧 기성세대가 됐다. 그동안 그는 늘 주변을 살피며 함께 공생할 수 있는 더 나은 길을 찾아왔다. 결국은 그 술한 고민들이 모여 꿈쩍할 것 같지 않던 제도와 관행들을 서서히 바꿔왔다. 보람만큼 고통이 따르는 길이지만 예나 지금이나 정치하기를 잘했다고 믿는 이유는, 사람을 바꾸고 문화를 바꾸고 그리하여 사회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후배들이

도전을 멈추지 않는 한,

저 또한 제자리에서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 일에

두 팔을 걷어붙이겠습니다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인천대학교의 성장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학이라는 공간이 다양한 사상과 철학의 집합체인 만큼, 앞으로도 치열한 토론과 논쟁을 거듭하며 술한 이질적 요소들을 더 높은 경지로 통합해가면서, 후배님들이 우리 인천대를 국제적 초일류 지식공동체로 육성해주길 바라고 또 믿습니다.”

● 인천대 동문모임 ‘인동회’ 회장, 대학발전기금 전달

요즘 대학생들의 치열한 경쟁 현실을 생각하면 자신은 상대적으로 수월한 젊은 날을

보낸 것 같으며, 김교홍 비서실장은 “그래서 더욱 포기하지 않고 꿈을 좇아 정진하는 후배들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김교홍 비서실장은 인천대 동문 모임 ‘인동회’ 회장을 맡아 2014년 2억 원의 대학발전기금 약정서를 모교에 전달하기도 했다. 2013년 설립된 인동회는 인천대 출신 정치·경제·언론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40여 명의 동문들로 구성돼 있다. 인동회는 모교를 사랑하는 정성을 담아 개인별로 600만 원에서 1600만 원의 대학발전기금을 약정하고, 10년간 매월 발전기금을 납부하고 있다.

“우리 모교 인천대학교가 그동안의 어려운 상황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거점 국립대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동문들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든 어느 사회든 간에 문제의식을 갖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중국에는 전체의 변화를 이끄는 법입니다. 여러분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경쟁력 있는 인재들이란 걸 잊지 말고, 기꺼이 고민하고 그 결과를 부지런히 실천에 옮기길 바랍니다. 당연히 더 높은 고지를 향해 비상하길 바랍니다. 우리 후배들이 도전을 멈추지 않는 한, 저 또한 제자리에서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 일에 두 팔을 걷어붙이겠습니다.”





IN-United ; 희망을 전하는 약속

우리는 하나

국문 93학번

이광호 동문

지역공동체와 함께 하는 시민사회 운동

우리대학은 사학재단으로 시작해 시립대로 전환되었고, 다시 지금의 국립대로 발전해왔다.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그 고비에 우리대학 구성원과 함께한 인천 시민과 시민 단체의 도움이 있었다. 당시 인천연대(현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 시민사회는 우리대학 구성원들과 함께 ‘인천대 정상화를 위한 범시민기구’를 구성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 우리대학이 정상화되고 지역 거점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1993년에 입학한 이광호 동문 역시 함께였고, 현재는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을 맡고 있다.

“농촌활동을 통해 만난 농민들의 현실, 공장폐쇄에 따라 실업자가 된 노동자들의 아픔, 미군기지 때문에 공원 하나 조성하기 힘들었던 부평구민들의 한숨. 그 속에서 사회 참여에 대한 각오를 다졌죠.”

그는 부평의 구 주택가에서 무료 공부방을 운영하는 것을 시작으로 시민사회 활동가로서 첫발을 내디뎠다. 초등학교 선생님, 동네 주민들과 함께 주민공동체 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인천평화복지연대에서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지역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 그 와중에 부평지역 16만 평에 이르는 미군기지 반환을 확정 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외에도 공공기관의 공익 감사 청구 활동, 사회복지 관련 활동, 시민혈세 감시활동, 지역 이슈 정책화 운동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있다.

시민사회 활동가는

공동체의

目_(눈)과 耳_(귀)다

김남주의 시와 조정래의 소설을 읽으며 현실에 눈을 뜬 스무 살 청년, 그는 누구보다 사회의 부조리에 맞서 진실한 목소리를 내며 치열한 20대를 보냈다. 졸업 후에도 사회 참여 활동에 여념이 없던 그, 어느덧 불혹의 나이를 훌쩍 넘긴 시민사회 활동가 국문학과 93학번 이광호 동문을 만났다.

edit 신경화 photograph 이덕재



공익적 활동, 각자의 방식에 따라 실천할 수 있어

‘평범한 직장인보다 조금 더 가난하게 살겠다.’ 시민사회 활동가를 전업으로 선택한 이광호 동문의 각오다. 시민단체 활동을 세금으로 보장하는 선진 외국과는 달리 여전히 어려운 재정문제는 한국 시민단체의 현실이다. 그간 시민단체를 변화하려는 시도들도 많았기에 독립성을 생명처럼 여기는 시민단체는 정부 지원을 받기가 요원했다. “지역의 대학이 가진 자원들이 많으니 소규모 복지시설과 연계된 멘토나 결연 봉사 활동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대학은 그에 맞는 역할을, 개인은 각자의 위치에서 나름의 방식에 따라 공익적 활동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우리대학 동문회 운영위원 겸 이사를 맡고 있는 이광호 동문에게 우리대학은 특별한 존재이자 자긍심이다. 학원 민주화 문제로 전국의 대학이 한창 몸살을 앓던 시대를 거쳐 시립대와 국립대로 전환되는 과정을 함께하며 가슴에는 더 큰 자부심이 자리 잡았다.

“후배들이 모교에 대한 애정과 자긍심을 더 갖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천 지역에 관심을 두고 한 번쯤 돌아보면 좋겠어요. 저 또한 제 자리에서 후배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할 것입니다.” 20대의 뜨거운 가슴은 아닐지 모른다. 그러나 언제나 넓은 가슴을 내어주며 시민 곁에 서 있는 이광호 동문, 그가 자긍심을 품고 펼치는 시민사회 운동은 더 성숙한 인천을 만드는 자양분이 될 것이다.

IN-United ; 희망을 전하는 약속

동문 소식

동문 소식

2017년 총동문회 정기총회 및 가족등반대회

- ‘2017년 인천대학교 총동문회 정기총회 및 가족등반대회’가 6월 11일(일) 오전 9시부터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총 2부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1부는 소래산 산행, 2부는 정기총회 순으로 진행된다.
일시 : 2017년 6월 11일(일) 오전 9시
문의 : 총동문회 사무처 032-835-4360

총동문회, 2017년 간담회서 모교 발전현황 논의

- 총동문회는 지난 4월 5일 조동성 총장과 2017년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모교발전을 위한 의견 수렴과 방안 모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의미 있는 소통의 자리로 마련되었다. 조동성 총장과 김광오 총동문회장은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갖고 모교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조동성 총장을 비롯하여 이찬근 부총장, 박미진 대외교류처장, 허진 학생취업처장이 참석하였으며, 총동문회에서는 김광오 회장을 비롯하여 권동수 수석부회장, 이정근 부회장, 서해용 부회장, 정수영 고문 등 10여 명이 참석하였다.



김광오 동문회장, 2017 안전공학과 동문 체육대회 참석

- 지난 5월 13일에 있었던 2017 안전공학과 동문 체육대회에 김광오 총동문회장이 격려차 뒤풀이에 참석하였다. 행사장 이동 중 갑작스러운 비로 인해 체육대회 본 행사에 참석하진 못 했지만, 본 행사 종료 후 뒤풀이에 참석하여 안전공학과 총동문회발전을 기원하는 격려사와 함께 격려금을 전달하였다. 또한, 김광오 총동문회장은 안전공학과 총동문회의 끈끈한 관계를 지속 하자는 의미의 재치 있는 건배사를 하였다.

민주노총 전국대학 노조 인천대지부 간담회 개최



- 민주노총 전국대학 노동조합 인천대지부는 국문 95학번 양승모 동문과 이정미 국회 의원과 함께 지난 5월 17일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어국문학과 동문 문학상 수상

- 국어국문학과 82학번 이태희 동문과 대학원 06학번 유인채 동문이 각각 문학상을 수상하며 우리대학의 명예를 드높였다. 이태희 동문은 2017년 계간 ‘시와산문’에서 작품상을, 유인채 동문은 국민일보에서 주최한 제9회 신춘문예에서 대상을 받았다.



이태희 동문



유인채 동문

제1회 기계공학과 총동문회 친선 골프대회

- 일시 : 2017년 6월 1일(목) 12시 30분
장소 : 송도 오렌지투스골프클럽
주최 : 기계공학과 총동문회
주관 : 기계공학과 80학번

전자 82학번 이명철 동문 기업 ‘키오스크코리아’ ‘디지털 디스플레이’ 러브콜

- 우리대학 동문인 이명철 이사(전자 82)가 운영하는 기업 키오스크코리아가 미디어월, 키오스크 등 국내 내로라하는 기능성 디스플레이 기기 설치 실적을 바탕으로 해외시장 공략에 나선다. 이명철 키오스크코리아 대표는 “인천국제공항,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강남역, 삼성역, 코엑스 등의 미디어월, 키오스크 등 국내 주요 시설에 디스플레이 기기를 설치해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다”며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수출 마케팅으로 중국, 동남아시아 시장 공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최근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인 나이키가 신발이나 티셔츠를 우리가 만든 투명 기기 내에 넣어 매장에 전시하기도 했으며, 코카콜라의 협력업체도 도입 검토 요청이 왔다”며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호응도가 높아 급속도로 시장이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름다운 전통, 인천대의 미래가 되다

경영대학원 MBA과정 33기 원우회 edit 유서진 photograph 이덕재



지난 2월, 졸업을 앞둔 경영대학원 MBA과정 33기 원우들이 우리대학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전달했다.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써달라며 발전기금 2천만 원을 기탁한 것이다. 경영대학원은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과 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모인 곳인 만큼 뜻을 하나로 모은 것이 더욱 특별하고 감사하게 느껴진다. 한마음으로 후배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그 아름다운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 그들을 찾았다.

기부에 참여해주신 모든 원우회 분들을 만날 수 없어 대표로 이상경 원우회장과 김성열 사무국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황금 같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대학 소식을 위해 소중한 시간을 내주셨다.

Q. 원우회에서 2천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부해주셨는데, 계기가 궁금합니다.

처음 대학원에 와서 선배들과의 시간을 갖던 중 오래 전부터 우리 대학원의 관례처럼 내려오는 발전기금 기부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편의상 관례라고 말씀드리지만 절대 강제성은 없고 100% 자율적으로 이어져오는 전통입니다.

저 역시 경영대학원에서 받은 도움들이 많아 어떻게 돌려주면 좋을까 고민했는데, 제가 원우회장으로 선출되면서 동기들에게 제안을 했어요. 선배님들처럼 ‘우리도 학교에 이바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떻겠냐.’고요. 다행히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참여해주셔서 좋은 분위기 속에서 기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Q. 개인이 아닌 여러 사람의 뜻을 모으는 게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금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원우들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신중 또 신중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릴

것처럼 절대 작은 금액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약 20여 명의 원우가 정성을 모아주셨는데 모두들 우리대학과 후배들을 위해 쓰인다는 생각으로 흔쾌히 나눔에 동참해주셨다는 게 매우 감사하죠.

Q. 혹시 원우들의 기부 참여를 이끌어낸 팁이 있다면요?

제가 기부를 위해 특별히 설득한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원우들이 우리대학에서 공부하며 느낀 여러 감정들이 있을 테지요. 감사함, 아쉬움 모두 발전기금을 통해 되갚고 채우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점에서 기부 참여를 이끌어낸 팁은 ‘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Q. 기부해주신 소중한 발전기금이 어떻게 사용됐으면 하나요?

아무래도 소속이 경영대학원이다 보니 경영대학 학부생들을 위해 많이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학생들에 비해서 강의실 수가 부족해요. 학생들에게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강의실이 부족하다, 도서관 자리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소중한 발전기금이 우리대학 시설이 개선되는 데에 쓰여 후배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으면 합니다.

Q. 앞으로 경영대학원에 입학할 후배들이 지속적으로 발전기금 기부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독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경영대학원은 여러 연령층의 사람이 모이다보니 다른 단체에 비해 의견을 모으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기부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되 기부에 대한 부담스러움이 들지 않도록’ 원칙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기수는 기부자 명단을 공개하지만 금액은 절대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룰이 있거든요. 돈이 오가는 일인 만큼 예민해질 수 있지만 너무 금액에 연연하지 않고 ‘나눔’에 초점을 둔다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Q. 경영대학 그리고 우리대학 후배들을 위한 응원 한 마디

솔직히 저희 세대 때는 인천대가 지금처럼 높지 않았습니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자녀들이 대학에 갈 나이가 되고 보니 우리대학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는지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분명 앞으로 10년 안에 대한민국에서 손에 꼽히는 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그러니 후배들도 우리대학에 자긍심을 가지고 인천대의 이름을 더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영인의 미래를 설계하는 곳 _ 경영대학원

우리대학 경영대학원은 1996년 국제경영대학원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이후 현대사회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경영철학, 경영전략, 기업관리 등의 역량을 갖춘 전문 경영인을 육성하고 있다. 특히 정보화 및 국제화의 흐름에 발맞춰 선진 경영이론과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이를 국내 실정에 접목시켜 세계 속에서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우리대학 경영대학원은 석사과정(MBA)과 최고경영자과정(CEO) 두 가지로 나뉜다. 석사과정은 국내 외 4년제 대학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예정)했거나 법령에 의해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들에 입학할 수 있으며, 총 4학기에 걸쳐 2년 간 진행된다.

최고경영자과정은 공·사기업체의 최고경영자 또는 임원, 국회의원, 고급공무원 등 각 분야의 지도급 인사가 참여할 수 있으며 1년 과정으로 진행된다. 우리대학 경영대학원은 국내 최고 수준의 교과 커리

클과 교수진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통해 이 시대 경영인들이 필요로 하는 경영지식을 비롯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인적네트워크 형성을 도와주는 교류와 소통의 장이 되기도 한다. 무엇보다 국립대의 가장 큰 이점인 ‘부담 없는 등록금’으로 그 어떤 명문대에 뒤지지 않는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이 훌륭하다. 20년 가까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경영대학원에서 오늘날 수많은 경영인들의 꿈이 이뤄지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원대한 꿈을 꾸고 있다면 그 중심에는 우리대학 경영대학원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

문의 : 032) 835-85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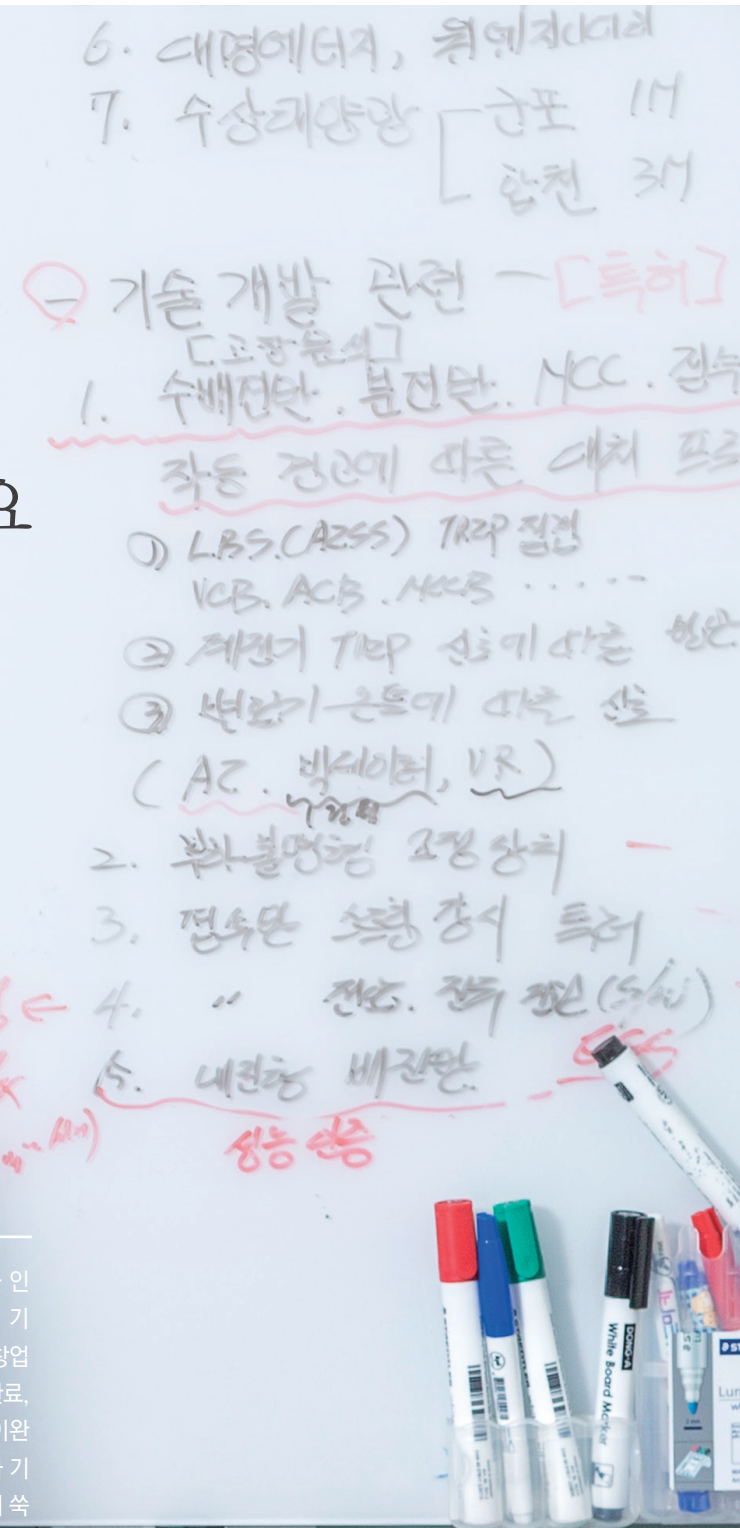
더불어 사는 삶, 기부에서 시작해요

에너지로드(ENERGY-ROAD)

이완구 대표

지난 4월, 에너지로드 이완구 대표가 인천대학교 발전기금으로 500만원을 기부했다. 이완구 대표는 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의 도움을 받아 상품 개발을 완료, 사업 확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에 이완구 대표는 학교 측에 감사를 표하고자 기부의 손길을 내밀었다. 인터뷰 요청에 쑥스러워하며 도움을 받았으니 기부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는 이완구 대표. 그의 기부 이야기를 들어보자.

edit 이한별 photograph 이덕재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에너지로드 이완구 대표입니다. 3년 전 국내 중견기업 퇴사 후 2014년 동료 직원들과 함께 제조업을 시작으로 신재생에너지·수배전반·전기공사 등을 주 사업으로 하는 ‘에너지로드’를 창업했습니다. 저는 대표이사로서 경영부터 영업, 엔지니어링 등 사업의 전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천대 발전기금 기부를 하시게 되셨나요?

창업을 한 후 상품 개발 관련하여 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의 멘토링, 자금지원 등 다방면으로 도움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시제품 만드는 것에 성공하게 되었고, 그 제품을 계기로 저희 회사의 국내매출이 크게 늘었어요. 이에 보답을 하고자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기부는 무엇입니까?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시절에 탐골공원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밤새 만든 김밥과 어묵국을 나눠드린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많이 쑥스러웠지만, 모두 나눠드리고 나니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느낀 감정이 지금까지도 제가 기부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또한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없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곳입니다. 누군가에게 받은 도움을 다시금 다른 이에게 전달하는 것. 그게 바로 기부가 아닐까요. 저는 저에게 도움을 주셨던 인천대학교 창업지원단을 비롯해 시청·구청, 소방기관 등 도움이 꼭 필요한 곳에 기부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이 학교에서 어떻게 쓰이길 원하시나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쓰이길 바라요. 대학시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학업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에 집중할 여건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기부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신이 넉넉하다고 해서 하는 것이 기부가 아니라 갖고 있는 것에서 나누는 것이 기부죠. 빠듯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한 것, 기부를 하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지요. 만약 기부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바로 실천하시길 바라요. 기부를 하는 작은 손길이 모여 따뜻한 사회, 더불어 사는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미래, 아름다운 습관으로

소액기부 참여 교직원

기부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저 약간의 정성과 진심이 있으면 누구든 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기부는 ‘남일’로만 치부되는 안타까운 현실에 놓여있다. 누군가는 동정심으로, 누군가는 정의감으로 기부를 하겠지만 기부는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닌 함께 나누는 데에 의미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작은 정성이지만 매달 소중한 마음을 모아 큰 기쁨을 실천하는 우리대학의 아름다운 얼굴을 만나본다.

edit 유서진 photograph 이주용

“저를 있게 한 모교에 이제는 돌려주고 싶어요”

물리학과_김병훈 교수

물리학과 김병훈 교수는 우리대학 동문이다. 1992년 물리학과에 입학하면서 처음 인천대와 인연을 맺고, 졸업 후인 2013년에 물리학과 교수로 부임하며 다시 한 번 우리대학과의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

김 교수는 2012년에 처음 발전기금 기부를 시작했다. 은사님을 뵙기 위해 우리대학에 잠깐 들렀을 때 우연히 발전기금 기부를 추천받았고, 그때의 결심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시작은 우연한 기회였지만 이제 그에게 기부란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 우리대학 발전기금 기부뿐만 아니라 유니세프, 소방관 지원단체에도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고 있다.

“저도 처음엔 기부에 특별한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다 친형님이 여러 방면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후원하는 모습을 보고 깨달았죠. 기부가 부자들만 하는 것이 아닌, 또 어려운 일도 아닌 너무나 평범한 일이란 걸요. 지금의 저를 있게 한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우리 인천대이기 때문에 학교와 후배들을 위해 꼭 돌려주고 싶었어요.” 그는 기부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지만 또 생각처럼 어려운 일도 아니라고 말한다.

“본인의 재능을 나누는 것도 충분히 대단한 일입니다. 베풀다보면 어느새 만족감이 쌓이게 되고 어느새 기부가 편해지고 즐거워질 테니까요.” 김 교수는 소중한 발전기금으로 인해 학생들이 받고 있는 혜택이 더 많이 노출되길 바란다. 그래야만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행복한 실천에 동참하고 싶어질 테니 말이다.

“학생들에게 꿈을 놓지 말라고 전해주고 싶습니다. 식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먼저 경험한 선배로서 말하자면 정말 간절히 바라고 노력하면 이룰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저는 후배들이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금처럼 제 자리에서 열심히 도울 예정입니다.”

기부가 부자들만 하는 것이 아닌,

또 어려운 일도 아닌

너무나 평범한 일이란걸 깨달았죠



“기부, 우리부터 먼저 해야 할 숙제”

정보전산과_김동호 과장

30여 년을 인천시 공무원으로 지내온 김동호 과장은 2012년 우리대학이 국립대로 전환되며 인천대와 첫 인연을 맺었다. 그가 우리대학에 오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교직원 우수리 발전기금 기부 참여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김동호 과장의 직책이 발전기금 팀장이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다니게 될 직장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그의 머릿속에 번뜩 떠오른 것이 바로 매달 월급의 일부를 기부하는 우수리 제도였다. 비록 작은 금액이지만 1년, 그리고 10년이 지나면 제법 큰 물결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였다.

발전기금 팀장으로 일하며 ‘어떻게 하면 기부에 대한 의식을 확산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전국 최초로 신용카드 포인트 기부 제도를 시도했고 정착시킬 수 있었다.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고객들의 포인트가 소멸되면 이득을 보는 카드사들의 경우 선불리 포인트 기

부에 대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신한카드만이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여주었다. 개인에게는 소멸되면 그만일 천 원, 이천 원의 작은 돈이지만 그것이 모이면 누군가에게 분명 큰 보탬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기부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부자들의 대한 예우라고 말한다.

“병원이 있는 타 대학들의 경우 발전기금 기부자들에게 평생진료권 제공의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대학 역시 발전기금 기부자들에게 평생교육원의 수강권을 제공한다던가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기부 의지를 고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김동호 과장은 우리대학 구성원들부터 ‘먼저’ 기부에 참여하기를 당부한다. 여전히 많은 교직원이 우수리 기부에 참여하지 않는다며 우리도 하지 않으면서 타인에게 그것을 바라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발전기금이 사용돼야 할 곳은 무궁무진하게 많지만 그는 우선 학생들의 기숙사 치우가 개선되길 바란다.

“예전에 기숙사를 한 번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비좁았던 기억이 나서 내내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매일 생활하는 집과 같은 공간인데 학생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교수님들 연구비나 학생들을 위해서도 충분히 사용되어야 하고요.”

그는 여전히 기부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기부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월급 받는 날 기분 좋은 마음과 더불어 기부의 기쁨까지 얻어갈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값진 일이 있을까요?”

앞으로도 김동호 과장은 우리대학을 위해서 꾸준한 기부를 이어갈 예정이다. 훌륭한 교수진, 열심히 일하는 교직원들이 있으니 학생들은 자긍심을 가지고 학업에 전념해 훗날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재원이 되길 바란다는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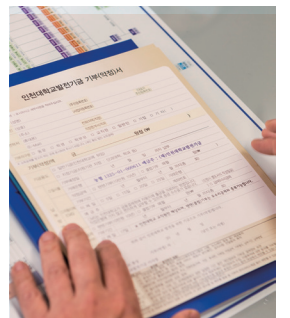
월급 받는 날 기분 좋은

마음과 더불어 기부의

기쁨까지 얻어갈 수 있다면

이보다 더 값진 일이

있을까요?



NH농협은행 인천영업본부, 1억2,000만 원 기탁

지난 4월 NH농협은행 인천영업본부는 우리대학을 찾아 지역인재 양성과 교육 발전을 위한 발전기금 1억2,000만 원을 전달했다. 또한 발전기금 외에도 제휴카드기금 7,700만 원도 함께 기탁했다. NH농협은행 인천영업본부는 2006년부터 본교 발전기금을 기탁해 왔으며, 현재까지 10억 원이 훌쩍 넘는 소중한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



총동문회, 발전기금 2,000만 원 기탁

우리대학 총동문회가 지난 1월 24일 조동성 총장에게 대학발전기금 2,000만 원을 전달했다. 김광오 총동문회장(산업공학 85학번, (주)엘에스폼웍 이사)은 “국립대학 전환이후 모교와 후배들이 성큼성큼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매우 자랑스러움을 느낀다. 후배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사회복지학과 이윤희 명예교수, 발전기금 1,000만 원 기탁

지난 2월 명예퇴직으로 강단을 떠난 사회복지학과 이윤희 명예교수가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해 달라며 대학발전기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 지난 1989년 부임한 이 명예교수는 강단을 떠나면서 소위된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는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학업과 봉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발전기금 기부를 결심하게 됐다고 한다.



(주)에이텍, 발전기금 1,000만 원 기탁

(주)에이텍 한가진 대표가 인천대학교에 대학발전기금 1천만 원을 기부했다. 컴퓨터 장비 제조 및 유지보수,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하는 (주)에이텍의 한가진 대표는 인

천대 전자공학과 80학번 출신 동문기업가로서 “후배들이 학비걱정 없이 세계적인 리더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다.”며 기부 소감을 전했다.

정책대학원 제38기 원우회, 500만 원 기탁

정책대학원 제38기 최고관리자과정 원우회(회장 장수홍)에서 대학 발전을 위하여 사용해 달라며 500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탁하였다. 원우회 관계자는 “수료식을 끝

으로 학교를 떠나며 그 동안의 학교에 대한 고마움과 모교의 발전에 동참한다는 취지로 본 발전기금을 마련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14기, 500만 원 기탁

지난 2월, 우리대학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CEO) 14기 원우 일동이 대학발전과 학생 복지를 위해 써달라며 발전기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14기 일동은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대학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는 거점 국립대학으로 발전하는 데에 소중하게 쓰이길 바란다.”고 전했다.

발전기금 현황 (2017년 2월 1일 ~ 2017년 4월 31일)

1 기부 현황 1

후원자명	구분	후원금액
농협은행(주)	기업	120,000,000
인천시청지점		
경영대학원 MBA과정	단체	20,000,000
33기 원우회		
인천대학교총동문회	단체	20,000,000
(주)에이텍	기업	10,000,000
이윤희	교원	10,000,000
조한국	교원	10,000,000
조동성	교원	6,000,000
(주)에너지로드	기업	5,000,000
(주)코마텍코리아	기업	5,000,000
정책대학원 제38기		
최고관리자과정	단체	5,000,000
원우회		
(주)에스피지	기업	3,000,000
송상화	교원	3,000,000
옥우석	교원	3,000,000
유혜경	교원	3,000,000
하진	교원	3,000,000
(주)스페이스		
몬스터컨텐츠	기업	2,000,000
(주)인솔텍/김영조	기업	2,000,000
김준동	교원	2,000,000
박종욱	교원	2,000,000
서정현	교원	2,000,000
변운식	교원	1,500,000
박주문	교원	1,200,000
손훈수	동문	1,000,000
인순길	교원	1,000,000
여기태	교원	1,000,000
영인과학(주)	기업	1,000,000
이남수	개인	1,000,000
정영식	교원	1,000,000
정책대학원 석사과정		
제43대 원우회	단체	1,000,000
홍기용	교원	1,000,000
(주)와이티엔	기업	769,044
권혁준/		
(주)시트론정보통신	기업	600,000
배양식	교원	600,000
이정연(임소영)	개인	600,000
이은자	동문	500,000
조중휘	교원	450,000
(주)울인월시스템	기업	300,000
강현철	교원	300,000
곽문선	조교	300,000
구경현	교원	300,000
김문수	개인	300,000
김상현	동문	300,000
김승태/		
드림오피스(세연인포)	기업	300,000
김용환	개인	300,000
김유신/미림전력	기업	300,000
김장성	동문	300,000
노영돈	교원	300,000
노창근	동문	300,000
박중승	교원	300,000
삼우기공/이영자	기업	300,000
양미혜	교원	300,000
유정희/(주)H-에너지	기업	300,000
윤용식	직원	300,000
이군익	동문	300,000
이상동	직원	300,000
이상욱	동문	300,000
이순득/(주)진성엔텍	기업	300,000
이승민	동문	300,000
이영애	교원	300,000
이은주	교원	300,000
이재성	동문	300,000

후원자명	구분	후원금액
이정식/(주)한마	기업	300,000
장태관/GVS(주)	기업	300,000
정광훈/유카스에너지	기업	300,000
추성호/인성환경	동문	300,000
한창원	동문	300,000
홍필기/		
서인천현대모터스	기업	300,000
주식회사		
황민식/해천이엔씨	기업	300,000
황현배	동문	300,000
곽병선	교원	250,000
고영림	학부모	200,000
김광미	학부모	200,000
김미향	학부모	200,000
김성숙	학부모	200,000
김정식	학부모	200,000
김혁수	학부모	200,000
윤태순	학부모	200,000
이병관	동문	200,000
전성택	교원	200,000
정운식	학부모	200,000
조아리사	학부모	200,000
한만순	학부모	200,000
황선희	학부모	200,000
김관호	교원	150,000
김교홍	동문	150,000
김병훈	교원	150,000
김숙진	동문	150,000
김승환	직원	150,000
김환식	직원	150,000
김홍근	동문	150,000
박지선	교원	150,000
설경자	직원	150,000
소대수	동문	150,000
심광흠	동문	150,000
유정흔	동문	150,000
윤용	동문	150,000
이승열	직원	150,000
이중현	동문	150,000
임승빈	직원	150,000
제희태	동문	150,000
황용	동문	150,000
박재용	동문	120,000
윤영국	동문	120,000
추승연(추성호)	개인	120,000
추희연(추성호)	개인	120,000
황지영	동문	120,000
강설희	학부모	100,000
강순희	학부모	100,000
강택규	학부모	100,000
김광수	학부모	100,000
김국현	학부모	100,000
김난이	학부모	100,000
김미란	학부모	100,000
김연중	학부모	100,000
김용덕	학부모	100,000
김은경	학부모	100,000
김홍규	학부모	100,000
박석희	학부모	100,000
박찬미	학부모	100,000
박창균	학부모	100,000
박태준	학부모	100,000
박화택	학부모	100,000
박효진	동문	100,000
박희자	학부모	100,000
방준식	학부모	100,000
배인숙	학부모	100,000
성예슬	학부모	100,000

후원자명	구분	후원금액
손운화	학부모	100,000
송윤주	교원	100,000
신현창	학부모	100,000
오명주	학부모	100,000
우인보	학부모	100,000
유민경	학부모	100,000
이종열	교원	100,000
장숙향	학부모	100,000
전준식	학부모	100,000
정수진	학부모	100,000
조남준	학부모	100,000
조성현	학부모	100,000
차기울	교원	100,000
최광식	학부모	100,000
최정민	학부모	100,000
홍진배	학부모	100,000
홍진배	교원	100,000
고민정(조교)	조교	90,000
김규만	동문	90,000
박은경	교원	90,000
안춘순	교원	90,000
윤덕영	동문	90,000
윤영도	교원	90,000
이창연	학부모	90,000
권오중	교원	60,000
김동민	동문	60,000
김보슬	동문	60,000
김연자	직원	60,000
김태성	교원	60,000
오복자/		
국제광고(전무홍)	동문	60,000
이준호	직원	60,000
최명중	직원	60,000
김동철	학부모	50,100
김인애	학부모	50,100
김중하	학부모	50,100
김현희	학부모	50,100
김형완	학부모	50,100
박병란	학부모	50,100
안성준	학부모	50,100
양수미	학부모	50,100
우임자	학부모	50,100
윤경희	학부모	50,100
윤영국	학부모	50,100
이대영	학부모	50,100
이민숙	학부모	50,100
장경호	학부모	50,100
장수정	학부모	50,100
정선영	학부모	50,100
주정은	학부모	50,100
김기욱	학부모	50,000
김병순	학부모	50,000
김순희	학부모	50,000
노승아	학부모	50,000
박은경	학부모	50,000
박해권	학부모	50,000
배경희	학부모	50,000
서정근	학부모	50,000
손병구	학부모	50,000
왕흔	학부모	50,000
이기영	학부모	50,000
이봉섭	학부모	50,000
임진숙	학부모	50,000
조성만	학부모	50,000
한미경	학부모	50,000
한정희	학부모	50,000
고덕봉	직원	30,000
권정희	직원	30,000

후원자명	구분	후원금액
김규원	교원	30,000
김기만	직원	30,000
김동규	직원	30,000
김삼현/		
가온종합물류(주)	기업	30,000
김영목/		
승일자동차공업	기업	30,000
김재철	동문	30,000
김종인	직원	30,000
김지훈	동문	30,000
김찬주	교원	30,000
김치용	동문	30,000
김형기	직원	30,000
문종욱	동문	30,000
문준영	교원	30,000
박규봉/		
서진엔지니어링(주)	기업	30,000
박민범	교원	30,000
박영돈	교원	30,000
박정연	직원	30,000
박정희	동문	30,000
배가람	동문	30,000
서상범	직원	30,000
신천수	직원	30,000
안동찬	직원	30,000
우인성	교원	30,000
유병순	조교	30,000
윤병선	동문	30,000
이두경	동문	30,000
이병기	동문	30,000
이상봉	동문	30,000
이성호	동문	30,000
이애영	직원	30,000
이광현	조교	30,000
이정희	직원	30,000
이종훈	동문	30,000
이진희	직원	30,000
임찬욱	직원	30,000
임태은	교원	30,000
장소영	직원	30,000
장인우	교원	30,000
최민경	조교	30,000
최재혁	직원	30,000
최상길	조교	30,000
한종민	직원	30,000
허광현	학부모	30,000
허성희	직원	30,000
구태환	교원	25,000
박근수	교원	25,000
임일진	교원	25,000
하병훈	교원	25,000
문병수	교원	20,000
박종석	직원	20,000
안혜신	교원	20,000
김경아	조교	10,000
김윤신	교원	10,000
김일남	교원	10,000
김지용	교원	10,000
문선중	직원	10,000
심순애	직원	10,000
윤희광	동문	10,000
이문학	교원	10,000
장동수	개인	10,000
장현주	직원	10,000
정병철	개인	10,000
조천석	직원	10,000
홍현경	조교	10,000
홍현표	직원	10,000

| 우수리 현황 |

후원자명	구분	후원금액
김복영	교원	58,750
이황주	직원	35,360
박문주	교원	27,840
홍현경	조교	27,720
권혁준	교원	25,270
공용득	직원	25,170
김동호	직원	24,960
심민석	교원	24,910
김평원	교원	24,810
전석희	교원	24,810
최인수	직원	24,550
김영희	교원	24,080
나인강	교원	23,900
안승범	교원	22,960
이윤정	조교	22,700
주현태	교원	22,670
정영식	교원	22,620
변윤식	교원	22,610
김동욱	교원	22,600
유재란	직원	22,580
박형의	직원	22,560
박정훈	교원	22,460
장서은	직원	22,420
송현호	교원	22,250
김응철	교원	22,240
황영삼	교원	22,210
조현우	교원	22,110
김산정	직원	22,050
오지은	조교	21,970
김창우	직원	21,900
박찬진	교원	21,890
이건상	교원	21,890
김광수	직원	21,730
민홍기	교원	21,700
장희경	직원	21,670
이희관	교원	21,570
박재윤	교원	21,290
정종태	교원	21,290
윤용식	직원	21,280
문은로	직원	21,230
황태진	직원	21,120
전찬기	교원	21,110
김연자	직원	20,950
이준호	직원	20,870
홍영진	직원	20,870
박미선	직원	20,660
최재혁	직원	20,610
김선호	교원	20,550
우요섭	교원	20,260
이진원	교원	20,170
김혜미	교원	20,080
최성을	교원	20,030
이민철	교원	19,930
강연제	직원	19,750
김정아	직원	19,610

후원자명	구분	후원금액
박주연	직원	19,500
김익수	교원	19,390
안영호	교원	19,270
고혜영	교원	19,130
이병관	조교	19,070
이영애	교원	19,060
정보람	조교	19,030
김동배	교원	18,890
김형기	직원	18,680
이종혁	직원	18,490
최계운	교원	18,480
구선희	직원	18,300
홍선표	교원	18,200
김학만	교원	18,150
김재근	교원	18,070
이지은	교원	17,980
김현우	직원	17,960
한상혁	직원	17,910
김현근	직원	17,890
한승헌	직원	17,850
이시자	교원	17,760
이한영	교원	17,680
최일용	직원	17,670
조천순	직원	17,540
김기만	직원	17,280
고은희	직원	17,030
장소영	직원	17,000
최영미	조교	16,930
채숙희	교원	16,900
안호선	교원	16,880
노정호	직원	16,860
김동규	직원	16,780
김재광	교원	16,770
최병길	교원	16,720
장현주	직원	16,650
이충우	직원	16,640
김내현	교원	16,590
이석기	직원	16,560
전동진	조교	16,480
심인애	직원	16,430
김환용	교원	16,380
이운형	교원	16,270
박시우	직원	16,260
최형우	직원	16,260
곽문선	조교	16,240
여인철	교원	16,210
신은기	교원	15,910
김종인	직원	15,880
김경아	조교	15,740
장진주	직원	15,720
안정규	교원	15,680
이병하	교원	15,540
정영민	직원	15,370
김광열	직원	15,330
안효진	교원	15,270

후원자명	구분	후원금액
이원경	교원	15,240
배양섭	교원	15,230
임경환	교원	15,210
이승철	직원	15,200
천성철	조교	15,170
민문기	직원	15,150
강효원	직원	15,020
박용호	교원	15,000
강현욱	교원	14,890
김정업	조교	14,690
반상찬	직원	14,670
최원	교원	14,670
조사욱	교원	14,390
우금순	직원	14,370
정경란	직원	14,310
한양호	직원	14,300
문옥미	직원	14,210
이나영	직원	14,020
김일남	교원	13,990
김정기	직원	13,980
차기율	교원	13,830
허성희	직원	13,790
이윤	교원	13,780
박정승	직원	13,740
서종국	직원	13,700
전용재	직원	13,670
김은선	직원	13,570
김소욱	직원	13,480
안해균	직원	13,420
은주영	직원	13,330
설경자	직원	13,270
최재웅	직원	13,140
김성연	교원	13,120
최윤희	직원	13,100
최성욱	교원	13,080
신미옥	직원	13,040
오원선	교원	13,040
이창연	조교	12,940
심형보	교원	12,930
김우일	교원	12,870
임지현	직원	12,860
권정희	직원	12,740
정선영	교원	12,690
안순길	교원	12,620
경명진	직원	12,590
유종근	교원	12,490
정옥경	교원	12,330
유은정	조교	12,280
조중휘	교원	12,270
신현주	조교	12,240
윤정아	직원	12,210
양운근	교원	12,160
방동인	직원	12,110
김영철	직원	12,080
김은영	교원	12,050

후원자명	구분	후원금액
채진석	교원	12,050
최윤정	직원	11,860
이영석	교원	11,830
박종돈	교원	11,710
강승택	교원	11,700
나인수	교원	11,670
홍수민	직원	11,670
박성완	교원	11,550
이은직	조교	11,520
박정준	교원	11,500
윤춘화	직원	11,490
박지선	교원	11,320
김영주	직원	11,310
신원태	교원	11,290
송원웅	교원	11,280
김정민	직원	11,210
박재일	직원	11,070
서상범	직원	11,020
김기준	교원	10,940
황미옥	교원	10,940
윤종구	직원	10,880
민철기	교원	10,870
박인선	교원	10,780
오은하	교원	10,730
전병준	직원	10,730
박지훈	교원	10,700
이연희	직원	10,590
고덕봉	직원	10,520
김수진	교원	10,250
송다영	교원	10,090
권정호	교원	10,060
이찬식	교원	10,020
정해준	교원	10,020
최은미	교원	9,980
강치후	조교	9,960
이지영	조교	9,860
이동후	교원	9,810
임정훈	교원	9,740
유재은	조교	9,720
이상동	직원	9,640
전동근	교원	9,580
방재한	직원	9,560
백종숙	직원	9,430
황병희	교원	9,410
정경찬	직원	9,340
노지승	교원	9,170
민금홍	직원	9,170
김진한	교원	9,150
김진호	교원	9,140
이승열	직원	9,140
강상혁	교원	9,070
곽준경	조교	8,950
양승모	조교	8,790
윤태웅	교원	8,770
이선영	조교	8,770

후원자명	구분	후원금액
조명순	직원	8,750
윤세원	교원	8,710
임병미	직원	8,670
한종민	직원	8,520
조재인	교원	8,490
이도균	교원	8,480
박은경	교원	8,400
조길수	직원	8,390
이승매	교원	8,300
전재철	직원	8,240
장인우	교원	8,170
김선경	직원	8,130
김성희	교원	8,130
김중호	직원	8,090
황명환	교원	7,760
김수현	조교	7,610
김관식	직원	7,560
정연서	조교	7,530
이향숙	교원	7,470
김선희	교원	7,420
신용권	교원	7,350

후원자명	구분	후원금액
우제대	직원	7,340
조봉래	교원	7,340
배순희	직원	7,140
손정숙	직원	7,130
박주문	교원	7,090
차지수	조교	7,030
윤창근	직원	6,870
김찬주	교원	6,740
이진섭	직원	6,600
안춘순	교원	6,560
강하라	교원	6,500
홍현표	직원	6,450
안익태	직원	6,340
김시연	교원	6,290
김승규	교원	6,180
최병심	직원	6,130
박승진	교원	6,100
박종욱	교원	5,970
김준석	교원	5,790
김태완	교원	5,680
이진희	직원	5,680

후원자명	구분	후원금액
윤효훈	직원	5,590
황상순	교원	5,460
김윤신	교원	5,400
김강우	교원	5,370
황선용	직원	5,350
김순홍	교원	5,300
홍기용	교원	5,300
김장균	교원	5,290
홍현숙	직원	5,240
이병학	직원	5,220
서정현	교원	4,960
정숨미	직원	4,940
양해숙	직원	4,780
박상임	직원	4,710
김화순	교원	4,600
송여숙	교원	4,560
권오미	직원	4,260
한상정	교원	4,260
권기영	교원	4,220
유혜경	교원	4,170
김기웅	교원	4,080

후원자명	구분	후원금액
김용민	교원	3,980
황미숙	조교	3,870
조혜영	교원	3,810
이효은	조교	3,740
박승준	교원	3,630
황재휘	직원	3,510
오혜영	조교	3,280
송월봉	교원	3,090
강상미	직원	3,070
조인구	교원	2,630
박홍규	교원	2,620
우인성	교원	2,380
이향숙	직원	1,840
이원준	교원	1,660
이창길	교원	1,630
임순	교원	960
최윤경	교원	880
김광수	직원	450
신광섭	교원	440
여운호	교원	360
박종승	교원	330
윤지영	조교	240

우리 동문의 기업을 소개합니다! 최고경영자 과정 제4기 윤준



• 기업소개

반석기업은 1987년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약 30여 년 동안 오직<비닐포장지(봉투)> 생산으로 한길만을 씬 없이 달려 왔으며, 고객의 신뢰와 믿음을 중시하며 각종 비닐원단 제조, 가공, 인쇄 전문 기업으로 전국 각 지역에 300여 개의 거래처를 두고 있으며 현재 식품가공비닐(밴드씰링)에도 사업을 확장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 생산 품목



• 주소 및 문의

주소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906번지 (1공장)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1175-11 (판매점)
전화번호 : 031)997-7961, F 031)997-7962 (1공장) / 032)438-5520, F 032)438-5521 (판매점)
홈페이지 : http://bscompany.kr/